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71호

Wednesday, April 9, 2025 A

트럼프, 다음은 환율전쟁

동맹국에 미국채 매입요구 나설 듯
달러값 낮추면 무역적자 축소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 다음으로 '환율전쟁'을 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만성적 무역·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완화를 빌미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요구할 거란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가치를 조정하는 다자간 협의체인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가진 상쇄 효과 때문이다. 실제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해 미국이 부과한 관세 효과의 4분의 3 이상을 상쇄했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무역·재정적자)'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구조적 강세 때문이다.

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준비 자산으로 쌓아두면서, 달러 가치가 과도하게 올라갔고 이로 인해 미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제조업 부



활을 내건 트럼프 정부로서는 달러 강세를 반드시 꺾을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의 최근 관세 부과가 달러 약세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내용의 구체적 시나리오도 있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만든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에서 "징벌적 관세 이후, 중국 등이 관세 인하를 대가로 통화 협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이다. 달

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려면, 그만큼 강한 수요(달러나 미국 국채 매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달러 강세가 지속하면 경상수지 적자는 누적된다. 반대로 트럼프 정부가 저율질 중인 '약달러' 조치는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보고서는 "100년물 미국 국채('강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약달러 속에서도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김남준 기자

VA 연 12만2천불 벌어야 주택 장만

4인 가족 3베드룸
MD 11만8천불, DC 17만1천불

버지니아에서 4인 가족이 주택을 마련하려면 연 소득 12만1534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매체 리얼터닷컴이 최근 발표한 주별 주택 구매 가능성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35개 주에서는 4인 가족이 중간 가격의 3베드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10만 달러가 넘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메릴랜드는 11만7505달러, 워싱턴DC는 17만1210달러가 필요했다.

메릴랜드는 오하이오, 미시간, 일리노이, 아이오와, 펜실베이니아, 캔자스, 인디애나, 미네소타 등과 함께 적은 소득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10개주에 포함됐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3개주는 연 20만 달러 이상 벌어야 4인 가족의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

리얼터닷컴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6.65%의 이자율, 10%의 다운페이먼트, 재산세와 보험료 포함 기준, 총 주거 지출이 소득의 30%인 연간 소득을 산출

했다. 전국에서 주택 구매가 가장 어려운 지역은 하와이였다.

하와이에서 3베드룸 주택의 중간 가격 주택은 79만6947달러로, 이 가격의 주택을 감당하려면 최소 연 소득이 22만9341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해당 주의 하와이에 거주하는 4인 가족 소득인 13만3656달러보다 41% 높은 수준이다.

하와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연 소득이 필요한 주는 메사추세츠로 74만9950달러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1만5816달러의 소득이 필요했다. 3위 캘리포니아에 이어 4위 뉴욕은 중간 가격이 65만9974달러인 3베드룸 주택을 위해 최소 18만9923달러를 연 수입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몬태나와 워싱턴의 경우, 중간 가격의 3베드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17만6513달러, 17만4700달러의 연 소득이 요구됐다.

한편 3베드룸 주택 마련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곳은 웨스트버지니아 주로 권장 연 소득은 7만1080달러였다.

김윤미 기자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사실상 재협상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 요구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소핑'을 선호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하고 지속 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

선, 미국산 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비용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던 중 2021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규모 증액은 관철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작년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 부과와 관련한 협상에 대해 "그들의 최고위급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으며, 상황은 좋아 보인다"고 썼다.

이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날 방미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응대하고 있다"며 "그들 모두는 미국과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썼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폐입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메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워싱턴 지역 주택 리스팅 18% 급증

페어팩스 중간매매가
82만9천불, 7.1% 상승



워싱턴지역 주택 리스팅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팅 기관 브라이트 MLS에 따르면 3월31일부터 4월6일 사이 워싱턴 메트로 지역 신규 리스팅 주택은 2338채로 전년동주 대비 18.4% 증가했다. 동년 전주에 비해서도 8.1% 상승했다.

이는 브라이트 MLS가 관할하는 중부대서양지역 전년동주 대비 평균 리스팅 증가율 17.0%, 동년전주 대비 7.4%보다 많은 것이다.

지역별 신규 리스팅 증가율은 스테포드 카운티(73.2%), 매나사스 시티(58.3%), 칼벳 카운티(50.0%), 라우던 카운티(25.9%), 몽고메리 카운티(21.4%), 페어팩스 카운티(18.2%),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16.8%), 워싱턴 DC(15.4%), 매나사스 파크 시티(14.3%) 등이었다.

지난주 워싱턴 메트로 지역 중간주택 매매가격은 62만달러로 전년동주 대비 3.3% 증가했다. 동년전주에 비해서는 1.9% 하락한 수치다. 버지니아 페어팩

스 카운티는 82만9천달러로, 전년동주 대비 7.1% 상승했다.

계약 후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판매건수도 1890채로 전년동주 대비 18.3% 증가했다. 동년전주에 비해서도 3.5% 증가했다.

주택 매물을 살펴본 건수는 3만285건으로 전년동주 대비 16% 감소했으나 동년전주 대비 8.4% 증가했다.

리스팅 주택 증가로 인해 기존 리스팅 가격을 인하하는 주택도 늘고 있다.

브라이트 MLS에 따르면 기존 리스팅 가격을 인정한 주택은 전체 리스팅 의 8.9%로, 전년동주 대비 7.3%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셀러에 비해 바이어의 레버리지가 올라간 셈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이트 MLS는 연방정부휴용부(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정책보다는 붐철 성수기라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지역 주택 시장은 붐철 성수가 형성되는 전형적인 대서양 연안지역 시장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 정책은 신규 리스팅 활동과 가격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계절적 요인을 이겨낼 힘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MD 의회 예산안 통과, 세금 등 16억불 증액 포함

메릴랜드 의회가 670억달러 규모의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33억달러의 적자 충당을 목적으로 16억달러에 이르는 세금 및 비용 인상분이 포함됐다.

통과된 예산안에는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납세자의 소득 세율 구간 2개를 신설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대

금의 3%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35만달러 이상의 자산양도 차익에 대해 2% 세금을 부과하고, 마리화나 세율을 9%에서 12%, 스

포츠 베티링 세율을 15%에서 20%, 차량용역 세율을 6%에서 6.5%로 인상하게 된다.

VA 3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권총 발사, 부모 체포

버지니아 스왓살베이나 카운티의 리힐 초등학교 3학년생이 가방에 권총을 담아 교실에 반입한 후 총탄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사건이 7일 오전 11시에 발생했지만 범죄 의도로 타겟을 정해 발사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밝혔다. 격발 직후 교사는 교실 내 26명 학생을 모

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국에서는 학생의 부모 2명을 모두 총기관리 부실 중범죄 혐의와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버지니아는 14세 미만 어린이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장전 상태의 총기를 잠금장치 없이 보관할 경우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MD 체비체이스 남편이 부인 살해 후 자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체비체이스의 한 고급 콘도에서 윌리엄 스톱 프렐린(63세)이 부인 케이트(61세)를 살충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윌리엄은 변호사, 케이트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해왔다. 워싱턴DC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폭력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한해 평균 1200건에 달하는 '살해 후 자살(murder-suicide)'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MD 의회 이민자 보호법안 통과

MD 의회 이민자 보호법안 통과

메릴랜드 상하원의회가 지역정부와 연방국토안보부의 287(g) 협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87(g) 협약은 지역정부가 검거한 범죄 이민자 정보를 특정 시간 내에

국토안보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담고 있다. 메릴랜드 의회는 불법체류자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VA 타이슨스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즌

버지니아 타이슨스의 캐피털 원뱅크 본사 공연장(7750 Capital One Tower Road)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즌을 개막한다.

올해 5년째를 맞는 뮤지컬 시즌 개막작은 '애덤스 패밀리'로 9월19일

개막한다. 뮤지컬 시즌은 내년 5월 '더 뮤직 맨' 폐막작까지 이어진다. 이밖에도 미세스 다투파이어, 티나-더 티나 터너 뮤지컬 등이 상연 예정이다. 티켓 판매는 5월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김윤미 기자

무장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

(군사분계선)

합참 "경고사격에 복상"

8일 개인 화기로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강원도의 군사분계선(MDL)을 침범, 군 당국이 경고 사격까지 한 뒤에야 복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이를 최근 다시 시작된 북한군의 최전방 단절 조치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으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북한이 접적지역에서 군의 경계 상태를 떠보려 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강원도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20명 가까운 북한군이 MDL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소총을 비롯한 개인 화기를 소지

했고, 위장색의 방호복을 갖추는 등 무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기 이전부터 감시 장비 등으로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고, 북한군이 MDL을 넘어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고, 군 당국의 경고 사격 뒤에야 복상했다.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의 MDL은 역(逆) 브이(V)자 형태로, 이들은 MDL의 측면부에서 진입을 시작해 약 50m 가장 전진했다고 한다. MDL의 가운데, 가장 먼 지점에서 따지면 최대 100m 지점까지 남하한 것이다.

북한군의 MDL 월남은 지난해 6월에도 있었다. 최전방 불화화 작업 등을 하

던 북한군 20~30명이 중부전선 MDL을 침범했다. 대부분은 도끼와 삽, 곡괭이를 들고 있어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던 병력으로 추정됐다. 군역시 수풀이 우거져 이들이 MDL 표식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이뤄진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 남하한 병력은 작업 복장이 아니라 무장했다는 점을 군은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MDL 침범이 벌목이나 지뢰 매설과 같은 최전방 단순 작업이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아직 불화화 작업을 하지 않은 최전방 지역을 사전 정찰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한국의 리더십 공백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군은 북한군이 최전방의 경계 이완 여부를 시험해보기 위해 MDL을 넘었을 가능성 등을 열어 놓고 분석 중이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워싱턴 날씨 (°F)

10일(목)	56-48	13일(일)	60-45
11일(금)	54-43	14일(월)	73-56
12일(토)	51-43	15일(화)	74-47

4월 9일(수) 56-4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1-495 가까운 1층 콘도 킹스팩 방1, 화1 \$1,600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방4, 화4 1/2, 차고2 \$4,100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방4, 화4 1/2, 차고2 \$3,900
--	---	---

**It's Okay,
with
Jesus!**

6월14일 DC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예정

트럼프 생일과 겹쳐

워싱턴DC에서 6월14일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벌어질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이다.

지역 언론 워싱턴 시티 페이퍼가 최초 보도한 사실을 국방부와 워싱턴DC 정부가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육해공군과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 위치한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등에 "6월 14일 펜타곤에서 백악관까지 4마일에 걸친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과 육군 창설기념일을 맞춰 군사 퍼레이드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추진했으나 무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이 반대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군사퍼레이드에 프랑스군의 사열을 받고 있다.

의회가 행사 비용이 9200만달러를 지원하지 않아 번번히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프랑스 방문 당시 군사 퍼레이드에 감동받아 미국에서 더 크고 화려한 행사를 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서도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바우저 시장의 반대를 우려해 워싱턴DC 자치권 박탈과 흡리스 텐트촌 철거를 위해 연방정부 공권력을 직접 투입할 것이라고 압박해 왔다.

소액 관세 면제 폐지

연방정부가 다음달부터 800달러 이하 제품도 수입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가운데, 값싼 제품으로 미국을 공략해 왔던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업에 의존하는 미국 중소기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태무, 쉬인 등이 이미 미국에 물류 창고를 확보하고 대비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미국의 중소 소매업체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율은 상품 가격의 30% 또는 개당 25달러로, 6월1일 부터는 개당 50달러로 인상된다. 미국은 1938년부터 소액 물품의 관세를 면제했다.

면제 한도가 2015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큰 혜택을 얻었다. 김윤미 기자

바우저 시장은 "워싱턴DC 도로에 탱크가 지나간다면 도로 팻홀 보수 공사에 수백만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우저 시장은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2026년 7월 4일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국가 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활동 기한도 250주년 독립기념일인 2026년 7월 4일까지로 못박았다.

250주년을 맞아 미국이 새롭게 재탄생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는 육군이 자랑하는 야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함비 군용 차량, 헬리콥터 등 각종 첨단 무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김욱재 기자

함께센터, 시민권 신청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시민권 신청비 전액 또는 50% 할인 혜택도 가능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함께센터(Hamkke Center)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민권 신청비용 전액(760달러) 또는 50%(380달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민귀화서비스국(USCIS)이 지난 2025년 3월 1일자로 시민권 신청서(N-400)를 개정함에 따라, 새롭게 바뀐 양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함께센터는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

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직원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며, 신청서 작성 후에는 자원봉사 이민 변호사 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를 검토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권 신청의 기본 자격 요건 요소로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언급됐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평균적인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행실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거나 신

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며 링크(bit.ly/hc-s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03-256-2208 (한국어 안내는 2번) 571-519-6939 (담당자 직통)

김윤미 기자

미 시민권 받고 한국 국적회복 신청하면... 한국 법원 "병역기피 의도 아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라도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고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갔으며, 만 35세이던 202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같은 해 한국 법무부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A씨에게 요건 미비와 병역기피

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법상 임의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36세를 초과해 국외 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원고는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윤미 기자

OMNI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Martindale-Hubbell

Super Lawyers

NOTABLE
Peer Rated for Strong Ethical Standards 2024

THE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관세에 세금까지... 소비자들 '이중고' 직면

연 최대 5500불 추가 부담 불가피 중산층 타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정세법(TCJA)의 만료 가능성이 겹치면서, 소비자들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폭스비즈니스뉴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가구당 연평균 최대 5500달러에 달하는 실질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EU)에는 20%, 한국에는 25%, 인도에는 26%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의류,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킴벌리 클라우딩 수석 연구원은 폭스와 인터뷰에서 "TCJA 감세 종료보다 관세가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해의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가구당 평균 38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남가주 한인상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의 필립 손 부회장은 "관세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직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많은 기업이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해 두었지만,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1~2개월 후부터는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



오렌지카운티 사우스코스트플라자몰 수입 브랜드 의류 매장에서 소비자들 쇼핑을 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화했던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CJA는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며,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 소득 8만 달러

수준의 중산층 가정은 연간 약 17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세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중산층 가계에는 연간 5500달러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

산이다. 현재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TCJA 연장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입장차와 국가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TCJA가 연장되어 세율 인하가 유지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TF)의 가렛 왓슨 정책분석 디렉터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비용 증가는 TCJA의 세금 혜택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TCJA의 연장 여부가 중산층 가계에 직결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논의와 통상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원희 기자

우주로 간 한국계 조니 김... 8개월간 ISS서 임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이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한 첫 여정을 시작했다. NASA의 온라인 생중계에 따르면 조니 김을 태운 러시아의 소유즈 MS-27 우주선은 8일 오후 1시 47분(한국시각) 카자흐스탄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조니 김이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첫 임무다.

조니 김은 이번 임무에서 ISS에서 약 8개월간 머물며 과학 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조니 김과 함께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 알렉세이



하버드의대를 졸업하고 우주비행사의 꿈을 이룬 조니 김. [사진 미 항공우주국]

주브리츠키가 탑승한 이 우주선은 약 4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5시 57분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김은 현역 군인(미 해군 소령)이자 하버드 의대 출신의 의사라는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어린 시절 가정 폭력에 시달리며 성장했으나 개인적 상처를 성장의 원동력을 삼았다. 해군 근무 중 NASA 우주비행사인 스캇 켈리를 만나 롤모델로 삼게 됐다고 한다. NASA가 지난달 공개한 인터뷰에서 그는 "(국제우주정거장의) 태양전지판을 수리하는 임무가 막중하다"며 "그 과정에서 우주 유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에어프레미아 호놀룰루 정기 취항

7월 2일부터 주 4회 운항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7월 2일부터 인천과 하와이 호놀룰루를 오가는 노선에 정기편을 운항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호놀룰루 취항으로 에어프레미아의 미주노선 정기편은 LA,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총 4개로 늘었다.

매주 월·수·금·토 인천국제공항에서 밤 10시30분에 출발해 현지시각 오전 11시50분 호놀룰루국제공항에 도착

하고, 호놀룰루에서는 낮 2시1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8시20분(4일)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항한다. 운항 스케줄은 정부 인가 조건으로 일부 변동될 수 있어 여행 전 일정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 예매는 지난 7일부터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대리점 등에서 시작했다. 예약 상황에 따라 항공권 예매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예매 일자에 따라 총액 운임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트럼프, 국가별 맞춤형 관세 협상 지시

동맹국등 우선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협상팀에 상호 관세 등과 관련해 국가별로 맞춤형 협상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8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를 받고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모든 개별 협상은 그나라의 시장, 수출, 미국의 수입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독특한 것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70개 가까운 국가가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하고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이들 국가는 미국산 제품

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터무니없는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산업을 차단함으로써 부당하게 부유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고의 제안을 갖고 오면 들을 것'이란 것이다"라면서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협상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하기로 했다는 케빈 헤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우리는 전 세계의 파트너와 동맹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 주먹다짐

'윤석열 탄핵' 놓고 몸싸움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견으로 주먹다짐을 벌인 끝에 다음 운항에 참여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관련자들에게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7일(한국시간)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항공사 국제선 기장 A씨와 부기장 B씨 간 몸싸움은 지난해 12월 19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인천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노선을 함께 운항한 뒤 현지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이들은 호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가 다투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부상을 당해 구급차량에 의해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호주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팀으로 비행에 나섰던 두 사람은 결국 귀국편 운항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후 각각 다른 비행기로 귀국했다. 대

한항공이 대체 인력을 급히 브리즈번으로 보내면서 운항에 차질은 없었다.

대한항공은 최근 중앙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와 B씨를 면직 처분했다. 폭행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기장 1명은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측이 중징계를 결정한 데는 운항 승무원들은 다음 비행을 준비하는 이른바 '데이 오버' 기간에 휴식을 취해야 함에도 상호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데다, 회사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들은 회사의 결정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지혜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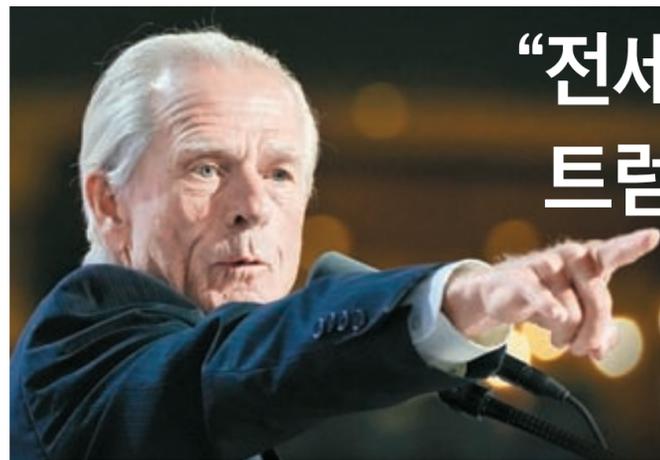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전세계가 미국에 바가지” 트럼프의 관세책사 나바로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고장난 세계 무역 체계를 고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지지 연설을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교수 때부터 중국 불공정 무역 비판 14년 전 트럼프 “나바로 책 좋다” 나바로, 트럼프와 상호관세 설계

트럼프의 무역전쟁 설계자, 보호무역 장벽을 쌓는 벽돌공, 무역전쟁의 배후 조종자.

미국 언론이 피터 나바로(75)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 고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을 짊어주고 2기에도 발탁된 경제 관료는 그가 유일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럼프가 LA타임스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책 10권 목록을 공개했는데, UC버버인 교수였던 나바로의 공저 『중국이 부른 죽음(Death by China)』을 6위에 올린 게 인연이 됐다.

나바로도 이 책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그 결과로 미국이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견해였다. 당시는 중국의 성장이 모두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우세할 때였다. 나바로도 2012년 배우 마틴 윈 내레이션으로 동명 다큐멘터리도 제작했다. 트럼프는 “이 중요한 다큐멘터리는 사실 관계와 수치,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 문제를 보여준다. 꼭 보라”고 추천했다.

두 아웃사이더는 손을 잡았다. 관세를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본 나바로와 자칭 ‘관세 맨’ 트럼프가 의기투합했다. 나바로가 2019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상호관세 부과 필요성을 주장한 지 6년이 흐른 지난 2일 트럼프는 90개국에

10~50%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나바로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바가지를 씌운다”고 믿는다. 그는 보스턴 공영방송(WBUR)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1950년대부터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회복하는 동안 세계의 돼지처럼 통 역할을 해왔다”면서 “관세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한 무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초래했고, 공장 등 제조업 기반 붕괴는 블루칼라 노동자 실직으로 이어졌다는 게 나바로 생각이다. 그는 역순으로 해법을 찾고자 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제조업 기반을 살려야 하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생산을 장려하면 제조업도 살고 무역적자도 줄어든 것으로 봤다.

나바로도 2023년 헤리티지재단이 펴낸 차기 보수 대통령을 위한 정책제안서 ‘프로젝트 2025’에서 무역 편을 짰다. 그는 미국 제조업·방위산업 기반과 공급망의 해외 이전으로 “미국이 전쟁해야 할 상황, 즉 유럽·일본·대만 같은 주요 동맹을 지원해야 할 경우 ‘민주주의의 병기장’ 역할을 한 제1·2차 세계대전 때처럼 필요한 무기나 재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가 있다”고 썼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나바로도 불공정한 무역의 핵심 원인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특히 최혜국대우(MFN)를 지목한다. MFN은 한 국가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면 나머지 회원국에도 최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차별을 금지해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회원국을 동등하게만 대우하면 관세를 높게 유지해도 되기 때문에 관세가 낮은 미국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고관세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평균 MFN 관세는 3.3%, 한국 13.4%, 중국 7.5% 등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간에는 FTA 관세가 우선 적용되지만,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많지 않다. 나바로도 7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고장난 세계 무역 체계를 고칠 것”이라며 WTO의 실패를 미국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광범위한 고율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려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나바로도 “관세를 세계 최대 시장이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다”고 맞선다. 그 이유로 “미국이 물건을 사줘야 생존하는 수출 의존형 국가들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참모들과 무역정책을 토론하다가 온건파의 ‘저항’에 부딪칠 때면 “나의 피터는 어디 있냐”며 나바로를 찾는다. 중국, 그리고 세계 무역이 미국에 위협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기 어려웠던 14년 전 ‘중국 패자’ 나바로에게 트럼프는 한 줄기 빛이었으며, 트럼프에게 나바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드는 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책사다.

박현영 경제전문기자

AI가 점령할 수 없는 직업은

향후 인공지능(AI)은 거의 모든 직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일부 서비스직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기술 발달의 위협을 덜 우려해도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인간의 감정과 판단력이 동시에 필요한 직업은 AI의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위스 취리히대학의 인적자원 관리 및 리더십 교수인 요헨 멩게스는 “이발

사나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기술 위협에 덜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감정적인 요소가 가미된 직업은 미래에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직업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업무라도 사람은 AI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판단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AI가 모든 직업을 집어삼키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직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스콧 러셀은 “영향을 받지 않을 역할은 생각할 수 없다”며 “많은 역할이 사람과 AI의 결합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지난해 10월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AI가 장기적으로 자신의 직업 전망을 좋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근로자는 단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0% 이상은 AI가 자신의 직업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 기념 백악관 방문 2024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챔피언인 LA 다저스 선수단이 7일 백악관을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저스 선수단을 초청, 격려와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계 선수 토미 현수 에드먼을 ‘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 칭하며, 그와 악수를 나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크레이튼 커쇼(왼쪽) 선수로부터 등번호 47번이 적힌 유니폼을 선물받았다. [다저스 제공]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로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21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락소울) 웨일링도라방
40
300m
뉴타운

미락소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프랑스서 번지는 신천지...탈퇴 신도 “동물취급 받았다”

프랑스 정부 산하 기관이 ‘문제적’ 복음주의 교회들이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그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의 신천지에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거론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이단 종교 퇴치 부처 간 합동 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 이후 프랑스 내에서 1천550건 이상의 이단 종교 관련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매체는 최근 당국이 1984년 한국에서 설립된 신천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천지는 자칭 메시아인 이만희가 설립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9년 전 프랑스에 설립된 이후 신도가 1천200명에 달한다고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신천지와 관련해 위원회에 신고된 건수도 약 50건에 이른다고 한다.

르파리지앵은 2019년 신천지에 빠졌다가 올해 1월 빠져나온 한 신도의 증언도 상세히 소개했다.

올해 26살인 사브리나(가명·26)는

2019년 7월 파리 전철 플랫폼에서 두 명의 여성을 만났다. 이들은 사브리나에게 “믿음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겠느냐”고 접근한 뒤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며 다음 모임에 나오라고 초대했다.

지방 출신으로 파리에서 외롭게 생활하던 사브리나는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모임에 나갔다.

사브리나는 “나는 ‘ECA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위장이었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걸 숨기려고 가짜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사브리나는 신천지 프랑스 본부에서 한국식 이름으로 불리며, 그가 압박한 종말로부터 구원됐다는 말을 들었다.

사브리나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초반에 받았지만, ‘임무를 띤 자’가 될 때까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생활 이면에는 어둡고 폭력적인 면이 존재했다. 누군가 수업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훈련 캠프’로 보내졌다.



프랑스 내 신천지 활동

[신천지 프랑스 홈페이지 캡처]

사브리나는 “3개월 동안 30명이 한 방에서, 그것도 바닥에서 자야 했다. 오전 5시 30분에 운동을 하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성경 공부가 있었다”며 “한 번은 누군가 화장실 물 내리는 걸 깜빡해서 자정에, 야외에서 팔굽혀펴기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사브리나는 신천지에서 정신적 통제도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사브리나는 “그들은 나에게 ‘남자 친

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에 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브리나는 일도 잘받기로 즐겼다.

사브리나는 “매달 수입의 10%를 십일조로 내야 했고, 한 번은 한국에 사원을 지어야 한다며 800유로를 요구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천지는 교회 밖에서 대화하는 것, 신천지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 등을 금지했고, 심지어 가족을 만나려면 허락받아야 했다고 사브리나는 주장했다.

사브리나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죽여야 한다’고 들었다”며 의식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가 옳은 곳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학대를 참아냈다”는 사브리나는 올해 11월 또 다른 훈련 캠프 소식을 듣고 탈퇴를 결심했다. 사브리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동물 취급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신천지 측은 르파리지앵의 취재에 “신천지는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심리적 제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훈련 캠프는 “오로지 영적 훈련일 뿐”이고, 인터넷 검색이 금지되지 않으며 교회 탈퇴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도들에게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한 적도 없으며, 십일조나 헌금은 “전적으로 신앙과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 최고 104% 트럼프, 대중 위협 중 “단호히 반격”

5% 떨어졌던 코스피, 소폭만 상승
일본 증시, 전날 낙폭분 회복과 대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양보 없는 ‘치킨게임’으로 치닫하고 있다. 양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의 미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미국이 이미 중국에 적용한 20% 관세에 상호관세(34%)와 추가 관세(50%)까지 더하면 총관세율은 104%에 달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다른 나라와는 즉시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중국은 단호히 반격 조치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미국이 고집만 내세운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충격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1면에 게재했다.

한국 경제는 비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중 수출이 1330억 달러로 가장 많고, 1278억 달러인 대미 수출이 그다음이다. 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38.2%를 차지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을 성장 기여도로 쪼개 보면 내수는 0.1%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은 1.9%포인트다. 지난해 경제 성장의 95%는 수출 호조 덕분이었다는 의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은 “한·미·중 세 나라의 무역 구조의 큰 줄기 중 하나는 미국으로 가는 중국산 완제품의 중간재를 한국이 공급하는 형태”라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정부(1.8%)와 한국은행(1.5%)의 전망치에 도달하는 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8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조정했다. 1.2%에서 0.9%로 낮춘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큰 폭의 미국 관세 인상을 비롯해 국내 정책 환경과 대외 악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금융시장이도 살얼음판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주간 거래 기준 전날보다 달러당 5.4원 내린

(환율 상승) 1473.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가장 낮다. 야간거래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한때 달러당 1480원까지 밀려났다.

원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위안화 약세 영향이 크다. 이날 한국시간 오후 5시 달러당 위안화는 한 달여 만에 달러당 7.3위안대로 하락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해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기 시작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위제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5.57% 폭락했던 코스피도 0.26%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전날 대비 6.03% 오르며, 전날 낙폭(-7.83%)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과 대비된다. 일본은 주요국가운데 처음으로 미국과 협상을 개시했다.

미국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 국내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규모는 최소 1조9000억 달러(약 280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국제 무역 전문가인 테라사 포트 미국 다트머스대 부교수는 “세계 무역 시스템에 불확실성을 가져옴에 따라 이제 누구도 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는 분명 미국을 투자하기에 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의 관세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증가시키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말했다. **염지현·장원석 기자**

트럼프 억만장자 친구들도 “관세 계산법, 이해 못해”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공화당 후원자인 억만장자 켄 램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너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서)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테리어 업체인 홈디포의 공동 창

립자인 그는 시장 상황과 관련해 “베트남 상호관세 46%는 헛소리이며,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34%도 너무 공격적이고 성급했다”며 “그 빌어먹을 관세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모든 수입품

에 10% 일괄 관세를 먼저 매긴 뒤에 개별 국가와 양자 협상을 진행하는 게 관리하기 쉽고 건설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지지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지난 6일 X(옛

트위터)에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심각한 정책적 실수”라며 “스스로 유발한 경제적 ‘핵겨울(nuclear winter)”이라고 짚었다. 관세전쟁의 후폭풍을 핵전쟁이 발생하면 닥칠 수 있는 일시적 빙하기에 빗댄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도 트럼

프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테슬라 이사회 일원이자 요식업체 경영자인 킴벌은 7일 X에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게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세금”이라며 “트럼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통령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

서유진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백성호 공인회계사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고국 대규모 산불 피해자들을 돕읍시다!



3, 4월에 고국 대한민국의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삶의 터전 앞에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3일, 아래 단체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한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인 사랑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현재까지 1만 6천달러를 모금해 주셨고,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 운동은 4월 3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니,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단체 및 기업

워싱턴중앙일보(발행인 김영천),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회장 린다 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기념연구 교육재단(이사장 양동자), 워싱턴·버지니아 통합한인노인연합회(회장 우태창),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김인철), 버지니아한인연합회(회장 박을구),
몽고메리한인회(회장 김용하), 프린스한인회(회장 이옥희), 한미자유연맹(총재 송재성),
부가티골프동우회(회장 김인덕), 글로벌어린이재단 버지니아지부(회장 김남숙), 볼티모어시티
쉐리프국(이광용, 오세광), 미주통일연대 워싱턴지회(회장 김유숙), 미국수도 워싱턴DC한인회
(회장 박대원), 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 김범수 목사), 즐거운 건강복지센터(대표 장현주),
모국 산불피해 돕기 모임(간사 김옥순)

*문의: 703-281-9660, 703-424-1111

한덕수의 깜짝카드, 헌법재판관 2인 지명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2인 합류 땀 현재 보수우위 재편 민주당 “내란 세력 알박기”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4월 18일 퇴임)의 후임자(대통령 몫)로 보수 성향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면 기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였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솔직한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이날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7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 미칠 여과를 방지하겠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 몫으로 선출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왔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낙담여 만에 임명됐다. 두 지명자가 현재에 합류하면 현재는 보수 성향(정형식·조한창·이완규·함상훈) 4명, 중도(정정미·김형두·김복형) 3명, 진보(정계선·마은혁) 2명 등 보수 우위 체제로 재편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세력 알박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 소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규태 기자

헌재 4:3:2 보수우위 재편... 국민의힘 ‘한덕수 차출론’ 확산

(보수) (중도) (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이완규·함상훈)를 지명한 건 사실 꽤 오래전 결정된 일이라고 한다. 한 대행은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궐위 시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핵심 참모들에게 밝혀 왔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한 대행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당한 87일 동안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재판관 지명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한 접수 2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그 이후엔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이라 주장해 왔던 한 대행이, 헌정 사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외 직무복귀 뒤 지명 의사 계속 밝혀 우원식 “청문회 요청 안 받겠다” 한, 차출설엔 “대선의 ㄷ도 말 말라”

국무회의 마친 이완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을 헌재가 실제 심판할 가능성도 있다. 이완규·함상훈 지명자가 합류하면 현재는 보수 성향(정형식·조한창·이완규·함상훈) 4명, 중도(정정미·김형두·김복형) 3명, 진보(정계선·마은혁) 2명 등 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차출설’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발 경제 위기에 ‘완리형 리더’라는 점과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막산이’, 한 대행을 ‘갓생이’라고 지칭하며 “안동 출신 막산이 vs 전주 출신 갓생이”라고 썼다.

하지만 이날 한 대행과 만났던 윤상현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필요성을 전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한 대행도 최근 총리실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선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모든 대국민 담화마다 이 자리가 자신이 마지막 소임이란 점을 강조했다. 대선에 출마하신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김기정 기자

법조계 다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임명 불가”...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아

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첫 지명 대행의 권한범위, 명확한 규정 없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2017년 3월 이선애 전 재판관(대법원장 지명), 지난

해 12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국회 선출) 등 권한대행의 임명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 몫의 지명권 행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헌법·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몫 3인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 행위이므로 불가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

설이다. 실제 황교안 대행 체제 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대통령 몫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해석에 근거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했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 보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한 뒤 20일 이내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을 재탄핵해 직무

정지하는 방법이 유일한 저지 방법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이후 ‘대행의 대행’의 임명을 막진 못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해석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의 지명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있어야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데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습니다.”

Cheltenham Homecare **첼튼햄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문의 전화: **800-764-1005** |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유재신 공인회계사 **유종옥 종합보험**

2024 **A** Return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 신청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캐나다 퀘벡, 몽트랑블랑, 천섬

천섬 크루즈/오저블케이즘/몽트랑블랑 곤돌라
5/23(금)-5/26(월)
3박4일 \$899

메모리얼 데이 스페셜

스모키마운틴

딕시스탬프 디너쇼/루비폴/락시티/스모키마운틴
5/24(토)-5/26(월)
2박3일 \$899

메모리얼 데이 스페셜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해외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4/21(월)-5/2(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마감
4/22(화)-5/2(금) 고국의 봄, 맛과 멋여행 10박11일	\$2,990
4/29(화)-5/9(금) 서유럽3개국 10박11일	마감
5/4(일)-5/16(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마감
5/28(수)-6/9(월) 알프스 파노라마	마감
6/3(화)-6/15(일) 아제르바이잔/조지아/아르메니아	마감
코카서스3국 12박13일	마감
알프스 하이лай트 9박10일	마감
7/1(화)-7/14(월) 여성 싱글 룸메이트 가능	\$5,095 재키 조
북유럽+발틱 13박14일	마감
7/12(토)-7/26(토) 백두산+서울시티투어+일본북해도 14박15일	\$5,990 NEW
7/12(토)-7/15(화) 백두산 천지 관광 딜러스 3박4일	\$799 NEW
(연길-도문-이도백하-백두산(서파, 북파), 웅정)	재키 조
7/17(목)-7/25(금) 북해도의 대자연-신록여행 8박9일	\$4,500 NEW
(북해도-삿포로, 니세코, 도야, 후라노)	
7/17(목)-7/22(화) 캐나다 록키 5박6일	마감
8/1(금)-8/15(금)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14박15일	\$16,400 조앤 한
8/1(금)-8/13(수) (케냐, 빅토리아폭포, 남아공)	마감
아프리카 여성 싱글 룸메이트 가능 12박13일	\$12,900
8/4(월)-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12,900
8/7(화)-8/11(월)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 재키 조
8/10(일)-8/16(토) 그린랜드 6박7일	\$5,950
8/13(수)-8/19(화) 알라스카 6박7일	추천
항공포함 \$3,090 세라 정	
9/8(월)-9/21(일) 중앙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5,290
9/8(월)-9/17(수) 우즈베키스탄 9박10일	\$3,990
9/14(일)-9/24(수)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애나 김
9/20(토)-9/28(금)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4,795 재키 조
9/30(화)-10/13(일)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13박14일	\$4,890
9/30(화)-10/7(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애나 김
동유럽 7박8일	\$2,890
10/6(월)-10/13(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7박8일	\$2,990
10/9(목)-10/18(토) 볼티모어 출발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9박10일	마감
보스톤-세인트 잭뉴브런스 워-시드니(노바스코샤)-할리팩스	
10/9(목)-10/19(일) 포르투갈 맛여행 일주 10박11일	\$4,890 조앤 한
10/15(수)-10/25(토)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박11일	\$2,990 인솔자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세라 정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마감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2,890
11/6(목)-11/18(화) 네팔과 부탄 여행 12박13일	\$5,490 조앤 한
11/7(금)-11/19(수) 일본의 알프스-알펜투어	
+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5,995 재키 조
11/1(화)-11/20(목) 카이로, 램피스, 아스완- 아부심벨-아스완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090 데이빗 한
11/26(수)-11/30(일) 핑스기빙 코스타리카 4박5일	항공포함 \$2,090 세라정
12/1(월)-12/7(일) 쿠바 6박7일	\$2,987 조앤 한
12/6(토)-12/20(토)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4박15일	\$6,590 재키 조
12/8(월)-12/20(토) 뉴질랜드+시드니 11박12일	\$4,950
2026년 1/26(월)-2/5(목) 신비의 인도여행 10박11일	
1/26(월)-2/7(토) 인도+두바이 12박13일	
1/16(목)-1/24(토) 바하마 크루즈(볼티모어 출발)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인솔자
2/3(화)-2/8(일)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항공포함 \$2,190 세라 정
2/10(화)-2/23(월) 남인도+스리랑카 13박14일	조앤 한
2/14(토)-2/23(월) 스리랑카 문화탐방 8박9일	
2/17(화)-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데이빗 한
3/3(월)-3/13(목) 파타고니아 10박11일	재키 조
3/3(일)-3/17(월)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3/23(월)-4/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여행	조앤 한
4/20(월)-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조앤 한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8/4(월)-8/16(토)
\$12,900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알라스카

특식 알라스카 최상품 연어회와 와인 제공
앵커리지호텔 3박 업그레이드 최고의 가이드
6박7일 8/13(수)-8/19(화)
\$3,090 항공포함 인솔자:세라 정

중앙 아시아 3국 실크로드 여행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탄/카자스탄
13박14일 9/8(월)-9/21(일)
\$5,2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서유럽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박11일 9/14(일)-9/24(수)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13박14일 9/30(화)-10/13(일)
\$4,890 항공포함 인솔자:애나 김

낭만의 동유럽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7박8일 9/30(화)-10/7(화) \$2,890 항공불포함

크로아티아 & 이태리 돌로미티 이지 트레킹

7박8일 10/6(월)-10/13(일) \$2,990 항공불포함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9/20(토)-9/28(금)
\$4,795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10/19(일)-10/31(금)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10/22(수)-10/31(금)
\$2,8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고국의 맛!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15(수)-10/25(토) 항공 불포함

제주포함 전국일주 10박 11일 \$2,990
제주불포함 내륙일주 8박 9일 \$2,390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모든 옵션 포함!!

볼티모어 출발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잡스톤/올랜드/마이애미/삿소 바하마 크루즈

2026년 1/16(목)-1/24(토) 8박9일 인솔자 동행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하세요!

뉴욕 1박2일 \$399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목 출발가능 4/16 마감, 5/19 출발확정 추석맞이 10/6 모집중!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수 출발가능 4/22, 5/7 출발확정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 출발가능 7/28 마감! \$1,350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3명이상 출발가능 루레이동굴 \$125

서부4대개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 항공 불포함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 항공 불포함

엘로스톤 3박4일

5월19일 부터 매주월,금 출발 \$950 항공 불포함

캐나다 록키 5박6일

\$1,190 항공 불포함

알라스카 6박7일

월요일 출발 \$1,650 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2명이상 출발가능 5박6일 \$1,300 항공 불포함 월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리 내려놓고 공약 올리고... 보수 주자들 속속 출마 공식화



대선 출마 내비친 국민의힘 주요 주자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됐다. 투표일을 불과 55일 앞두고 잠룡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는 국민의힘 후보군이 10여 명이 넘는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8일까지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의사를 내비친 예비주자들. 왼쪽부터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가나다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전격 사퇴하고 대신 출마를 공식화했다. 보수 진영 주자들이 6·3 대선에 잇따라 뛰어 들면서 내부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공식 확정된 직후였다. 김 전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 사의 표명하고 출마하게 됐다”며 “국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다”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조만간 국민의힘에도 입당할 예정이다.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지사를 지낸 김 전 장관은 12·3 계엄사태 후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모아왔다. 현

재 가장 유력한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인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제가 밀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안타까운 정치 현실과 국민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뜻밖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복귀를 바랐는데 파면돼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나는 계엄에 반대했고,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와 권력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을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후보군 중에서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안 의원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법률가 출신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과학자와 경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대선 출마표를 던졌다. 이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입기 단축

김문수, 장관 사퇴... 오늘 출마선언 안철수 출마선언, 한동훈은 10일 홍준표 14일, 오세훈 주 후반 출사표 국민의힘, 오늘 컷오프 방식 논의

을 해서라도 6공화국의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낼 지침서로서 국민 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른 주자들의 출마 일정도 속속 정해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9일,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각각 국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선 캠프인 국회 앞 대하빌딩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국회 앞 맨하탄21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후반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8일 “출마 결정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대선판에

등장하자 견제구도 나왔다. 홍 시장은 8일 대구시청 기자회견에서 “문수형(김 전 장관)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형하고는 다르다”며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안 해 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 끝났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 전 장관은) 필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도로의 확장성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경선 일정과 함께 예비경선(컷오프) 방식을 논의한다. 당내에선 경선 흥행을 위해 두세 차례 컷오프 과정을 거쳐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 뒤 본선에 나설 최종 후보를 뽑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라운드를 거칠 때마다 1명씩 탈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종 후보는 당원과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 뽑게 된다. 일부 후보는 본선 경쟁력 반영을 위해 당원·당규를 고쳐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시간이 촉박해 경선 물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선 승리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며 완전국민경선을 촉구했다.

범보수 진영에 속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나를 내쫓은 일)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이재명 “한, 대통령 된 걸로 착각”... 국민의힘 “용단 내린 것”

민주당 “권한쟁의·효력저지 가치분 중 이 소식을 접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권한대행 재탄핵엔 신중 기류는 법원을 나서며 “한 총리에게 지명할 권한이 없는 데 오버한 것”이라며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행을 ‘토끼’에 비유하며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토끼가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선 특히 “내란 세력 알박기”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처장은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처장

은 진보 진영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정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며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 속했던 이 처장은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에 대해 이 처장은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치분 신청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한민수 대변인)고 예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권한대행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소 정당들은 즉각 한

대행 재(再)탄핵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재탄핵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다. 당내에서도 “즉각 탄핵해야 한다”(정진욱 의원은) 요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명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아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으로 압박한다고 한 대행이 이를 철화할 가능성도 없고, 탄핵된 후 대행의 대행이 임명하면 끝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더군다나 사퇴 후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다는 얘기까지 도는 탄핵은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라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지명을 용단이라고 평가했다.

성지원·김정재 기자

1석 5조 통합보험

5 in 1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지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4년 중임제가 맞지 않겠나” 했던 이재명, 강경파 손 들어줬다



김민석·진성준·조승래 등 반개혁파 “내란 수습 우선…물리적 시간 없다” 7일 비공개 최고위서 우원식에 반발 박찬대, 의장·원내대표 회동에 불참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왼쪽)가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개혁을 놓고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혁 엇박자’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우 의장이 지난 6일 제안한 대선·개혁 동시투표를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이 대표가 다음 날 거부하면서 8일 민주당과 국회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최근 두 차례 만나

개혁을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하루 뒤인 5일에도 만났다. 이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선·개혁 동시투표를 주된 안건으로 논의했고, 이 대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우 의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개혁 추진에는 다수당 대표의 동의가 최대

관건”이라며 “우 의장은 이 대표와 6일 담화 일정부터 그 내용까지 사전 논의했다. 충분히 교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우 의장으로서 이 대표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입장 선회엔 공개 발언에 앞선 비공개 최고위가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초 오전 9시쯤 회의장에 앉자마자 “4년 중임제가 개혁의 방향으로 맞지 않겠다. 대통령에게도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운을 띄웠다고 한다. 우 의장과 회동과 관련해 “개혁 의제 전반에 대해 교감했다”며 ▶국회 추천총리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대통령 재임 중엔 개혁 추진이 오히려 어렵다. 대통령의 정치적 공이 되는 것을 야당이 경계해 발목을 잡지 않나”라고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도부 인사들은 반대 의사를 쏟아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표님 생각과 달리 권력구조 개편은 합부로 꺼냈다면 국민의 힘으로부터 3년 임기 단축이란 압박 공세만 받고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조

승래 수석대변인도 “내란 수습이 우선돼야 할 상황에 권력구조 개편은 국면을 전환하는 어젠다”라고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기 대선까지 국회가 단일한 개혁안을 합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했다.

묵묵히 들던 이 대표는 “(회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논의 수렴을 요구했고, 결국 김병주 최고위원이 “계엄법을 국방위에서 개정해 보려 했지만, 이 부분은 개혁 없이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계엄 요건 강화와 5·18 광주 정신 전문 수록이란 최소한의 개혁만으로 맞지 않겠다. 대통령에게도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운을 띄웠다고 한다. 우 의장과 회동과 관련해 “개혁 의제 전반에 대해 교감했다”며 ▶국회 추천총리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한편 8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했다. 그러자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막상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자 안면무사하고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유는 분명하다. 양손에 의회와 당을 쥐고 총통처럼 휘둘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에선 민주당이 당분간 국회 개혁특위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지환·성지원 기자**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104조…코로나 기간 빼면 최대

세수 감소 여파, GDP 대비 4% 무역갈등에 올해도 적자볼 수도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 8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건 코로나19 사태 와중이던 2020년(112조원)과 2022년(117조원) 이후 세 번째다. 적자는 2008년부터 17년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올라갔다. 해당 수치 역시 2020년(5.4%)과 2022년(5.0%) 이후 가장 높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을 내세웠지만, 3년 연속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43조5000억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61조2000억원 흑자)까지 차감한 것이다.

주요 원인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총수입이 예상보다 적었던 탓이다. 지난해 국제수입은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 적었는데, 기업들의 전년도 실적 부진하면서 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이 컸다.

‘세수 펀크’에 정부는 계획보다 총지출을 18조6000억원 줄이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등을 통해서다. 그러나 약자 복지 등에 대한 지출 증가에 따라 막대한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치인 117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계획보다는 20조5000억원 적었다. 국제 발행대신 외국환평형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약 17조원을 끌어온 효과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270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46.9%에서 지난해 46.1%로 0.8%포인트 개선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앞으로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기재부는 해당 수치가 2028년 50%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나라살림 적자는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국 불안과 미국발(發) 무역 갈등이 이어지며 다시 한번 상당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가 전망돼서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중 기자**

‘대장동 개발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징역 2년6월→항소심 무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8일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 등 원심 유죄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시장의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윤길)이 2013년 2월 시장의장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거수투표로 재표결에 부처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가 부정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김만배가 최윤길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뇌물을 공여했다

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더 살펴볼 것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씨의 청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2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2022년 2월 김씨와 최 전 의장을 뇌물공여 및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현실화되자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 상당의 성과급 계약을 맺고 11개월간 급여, 법인카드 명목으로 8000여만원 을 받았다는 혐의다.

한편 김씨는 남육 변호사 등 민간업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로 2021년 11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손승배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30대 외교관의 '발음 과외' ... 윤, 미 의회 연설문 달달 외웠다

며칠간 A4 용지 18쪽 통째 암기 해외정상 통역없이 말 걸어오기도

정치 입문 9개월 만에 권력의 정점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1060일) 만에 물러났다. 가장 빨리 뜨고, 가장 빨리 진 벼락스타였다. 과거 한국 정치사에서 못 본 장면도 여럿 남겼다. 그중 결정적 몇 장면의 비하인드를 전한다.

#영어 약한 윤, 연설문 통째 암기

2023년 4월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불렀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열광하며 윤 전 대통령의 손을 잡는 사진은 최고 수준의 한-미 관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각인됐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노래 부를 계획이 없었다. 만찬 직전 백악관이 돈 맥클린이 사인한 기타를 선물로 마련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무대로 이끈 건 바이든의 즉흥적인 결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빈 방문 뒤 기자 간담회에서 "가사가 생각이 안 났으면 아주 망신당할 뻔했다"고 회고했다. 참모진 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모습. ■하루 전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 [연합뉴스]

이에서 "윤 전 대통령이 9수를 하며 했던 다양한 경험이 도움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미 의회 영어 연설도 화제였다. 윤 전 대통령은 만찬 다음날 미 의회를 찾아 40여분간 구한말 미국

선교사에서 시작해 6·25전쟁 영웅과 한-미 동맹의 미래로 이어지는 연설을 이어갔다. 61번의 박수갈채가 터졌다. 원래 윤 전 대통령은 영어에 강하지 않다. 하지만 이날 연설을 위해 며칠간 집무실에서 A4 용지 18쪽 연설문 전체를 달달 외웠다. "부끄럽지만 좀 도와달라"며 30대 외교관 김원집 행정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문장과 발음을 다들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영어 실력을 높이 산 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통역 없이 말을 걸어와 윤 전 대통령을 당황하게 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다들 내 영어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더라"며 웃었다.

#이념이 가장 중요

2023년 8월 29일,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를 찾아 주먹을 쥐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외교에선 형식과 의전도 내려놓고 국익과 실리를 추구했던 윤 전 대통령이지만 국내 정치에선 반대였다. 그 2주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한다"고 한 데 이어 이념 공세를 본격화했다.

육군사관학교 흥분도 흥상 철거 논란 등 역사 전쟁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교수와도 멀어졌다.

이념 전쟁의 결과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였다. 그해 10월 열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던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 3개월 만에 사면을 해줘 가능했다. 하지만 민주당 진교훈 후보(현 강서구청장)에게 17%포인트 차이로 대패했다. 민심이 이념 전쟁에 체격을 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는 이념의 '이'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계엄 선포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헛말이 됐지만 말이다.

박태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산책하고 있다. 김중호 기자

관저 이삿짐 서초동으로 ... 윤, 11일쯤 퇴거할 듯

국민의힘선 "윤 절연"vs"분열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이날 관저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현재로서는 11일 퇴거가 유력하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공동주택이라 경호 계획 등을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하루빨리 나가고 싶은 게 아마 대통령 마음일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등을 놓고 충돌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8일 라디오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파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휘 당은 윤 전 대통령과 건전히 여사와는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선 조경태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대선은) 필패"라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위법 행위

로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우리는 전직 대통령 자신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며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오로지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로 후보를 결정하고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했다.

장서윤 기자

민주·혁신당, 윤 공세 지속... "민간인 윤 재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구속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날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며 "이제 윤석열이 파면돼 수사를 막을 걸림돌도, 수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통해 사법권정과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며 "검찰은 지체 없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

야 한다. 녹장 수사, 뒷북 수사, 선택적 수사 같은 소리는 더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민간인 윤석열로 돌아왔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더 이상 없다"며 "검찰은 민간인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다섯째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도 "관저의 드레스룸,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 등 불법 증축 의혹도 있다"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황

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기에 윤석열 구속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요구한다.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빠르게 구속하라"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파면된 대통령을 '황제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직 중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 대상에 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을 빼대로 한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경호 및 예우를 방지해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703-259-5617, 410-241-2520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소	가격	특징
1610 Westmoreland Ct, McLean, VA	\$1,999,900	NEW
16309 Sandy Bottom Ct, Woodbridge	\$970,000	COMING SOON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501,000	SOLD
1474 Hampton Hill, McLean, VA	\$1.3M	SOLD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1.2M	SOLD
10** Salt Meadow, McLean	\$2.73M	SOLD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최신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페어팩스 지역 북-동쪽 나을 집 렌트 리스팅 50여채 있음	4/1-7/31 입주 가능한 집	\$1,800-\$5,200 가격대 렌트 집 리스팅.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올 여름에 파견 나올 주재원 6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6월 말-8월 초 입주 희망	\$2,000-\$5,500 가격대 렌트
3618 Cantrell, Fairfax, VA	2년	크레딧 좋은 Non-Korean 가족
6406 Hawk View Ln, Alexandria, VA	2년	크레딧 좋은 Non-Korean 가족
9411 Myra Dr, Great Falls, VA	3년	비교적 알 좋은 조건이지만, 주인이 에이전트와 오랜 거래 덕분에 수 많은 경쟁 신청자 불허. 주인 및, 에이전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유리 승낙 받았다고 함. 역시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일. 주재원
4658 Braddock Green Ct, Fairfax, VA	3년	3번째 신청자지만, 오랜 노이우로 특별. 주재원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영상으로 보유하고 계약 완료. 국제/국
1042 Warbler Place, McLean, VA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한국에서 영상보고 3년 렌트임.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 외 30여채 더 있음

의협, 정부·국회에 첫 대화 요청 ... 의대정원 동결도 동의

(2026년도)

의협 “윤 파면 뒤 분위기 바뀌어” 의정갈등 논의 테이블 마련 제안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처음으로 정부·국회를 향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달라”면서 대화를 요청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도 ‘3058명 동결’이란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뜻도 밝혔다. 1년 2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의협은 8일 브리핑에서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갈등 후 사실상 처음으로 대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의협은 지난 3일까지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만 했다. 하지만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이제 대화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던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전공의·의대생이 입었던 상처도 많이 위로받았다고 평가한다”며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전공의·의대생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탄핵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더는 정원을 줄이자고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강경파인) 박단 부회장의 발언권도 많이 약해졌다”고 전했다.

대선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한 대통령은 짧은 기간이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 결정을 도와줄 국회 측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무산된 여야의정 협의

체를 구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처음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의 말장난”이라고 비판하거나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김택우 회장)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대변인은 “2026년 의대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3058명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 ‘내년에 다시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뽑을 거야’라는 식의 언사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며 정원 동결을 빨리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의쳐온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주장도 누그러뜨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등은 고수하긴 했지만 “의료개혁 과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세부 내용이 불합리한 게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수현·채혜선 기자



공공기관 일자리 찾아서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주최로 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5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부 “임원 연봉 많다” 지적에도 ... 음저협 회장 2배로 올렸다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관리로 수입 10% 때는 구조 협회 “매출 대비 회장 보수는 0.03%”

20대 여성 A씨는 작곡을 시작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중가요 60여 곡을 만들었지만, 월 저작권 수입은 30만원대에 불과하다. 간혹 연간 수익 원의 저작권 수익을 올리는 작곡가들이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그런 사례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A씨의 설명. A씨는 “아이돌 앨범 작업에 끼지 못하는 작곡가들의 수입은 고만고만하다”며 “주 4회는 입시 레슨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다”고 했다.

A씨와 같은 작곡가·작사가들의 저작권을 관리해주고 저작권 수입의 약 10%를 떼가는 저작권 단체들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저작권 단체들은 임원 회의비로 연간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시정 명령을 무시한 채 임원 보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권 단체 시정명령 이행 현황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해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4300만 원을 지급했다. 보수 1억800만원, 업무추진비 1억7700만원 등이다. 특히 음저협은 올해 3월 회장 보수를 연 1억9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1억800만원)의 두 배 가까운 액수다. 음저협은 회장 보수 인상을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했고 추가월회장은 14개월분의 인상분 소급액 약 9900만 원을 최근 일괄 수령했다. 소급분까지 합해 2024년 한 해만 4억 2800만 원을 받은 셈이다.

임원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

부 지적에 따라 음저협 회장의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지난해 월 2000만원에서 올해 월 1500만원으로 줄었지만,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월 350만원), 한국관광공사(월 166만원) 등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문체부는 그 외에도 비상임이사 회의비 상한선을 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음저협은 이를 무시했다. 지난해 음저협 비상임이사 18인이 가져간 회의비는 1인 평균 3000만원, 최대 4870만원이다.

임원들의 보수·수당에 비해 회원의 저작권료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음저협 회원이 받은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66만원에 불과했다.

음저협 전체 회원(5만5544명)의 74%를 차지하는 준회원의 1인당 월평균 저작권 수입은 28만8000원이다.

음저협은 “지난 10년간 협회가 징수하는 저작권료가 3배 이상 늘었고 회장 보수가 2010년부터 13년간 동결됐음을 고려하면 지난해의 인상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협회 매출 대비 회장 보수 비율은 0.03%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홍지유·최혜리 기자



여의도 봄꽃축제 개막 '2025 여의도 봄꽃축제'가 8일 개막했다. 이날 평일임에도 여의도 윤중로를 찾은 시민들은 포근한 날씨에 활짝 핀 벚꽃길을 걸으며 봄을 만끽했다. 기상청은 오늘(9일) 오후부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봄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150억 과징금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 자회사)

알리페이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약 150억원으로 결정했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이용자 개인정보가 4000만 명에 달하다 보니 과징금 규모가 불어났다. 금융감원은 카카오페이 CEO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임직원 제재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만 중징계는 아닌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금융위원회다. 이르면 이달 말 제재 안건을 논의해 과징금 액수를 비롯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원안보다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가 줄어들 수 있다.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한 토스에 역대 최대인 53억원대 과징금을 부

과했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는 결제사업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금융위가 적용한 신용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결정한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정진호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 매매**
-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화장실3.5
 -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화장실3.5, 호수부, 차고 2, 렌트 \$3,600

- 렌트**
-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화장실3, 차고 2, 입주 6월
 - 채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화3,5, 차고 2, 입주 4월초
 - 우드브리지 \$3,200 방3+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 맥클린 로튼다 콘도 방2+ 화장실 2, 즉시 입주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르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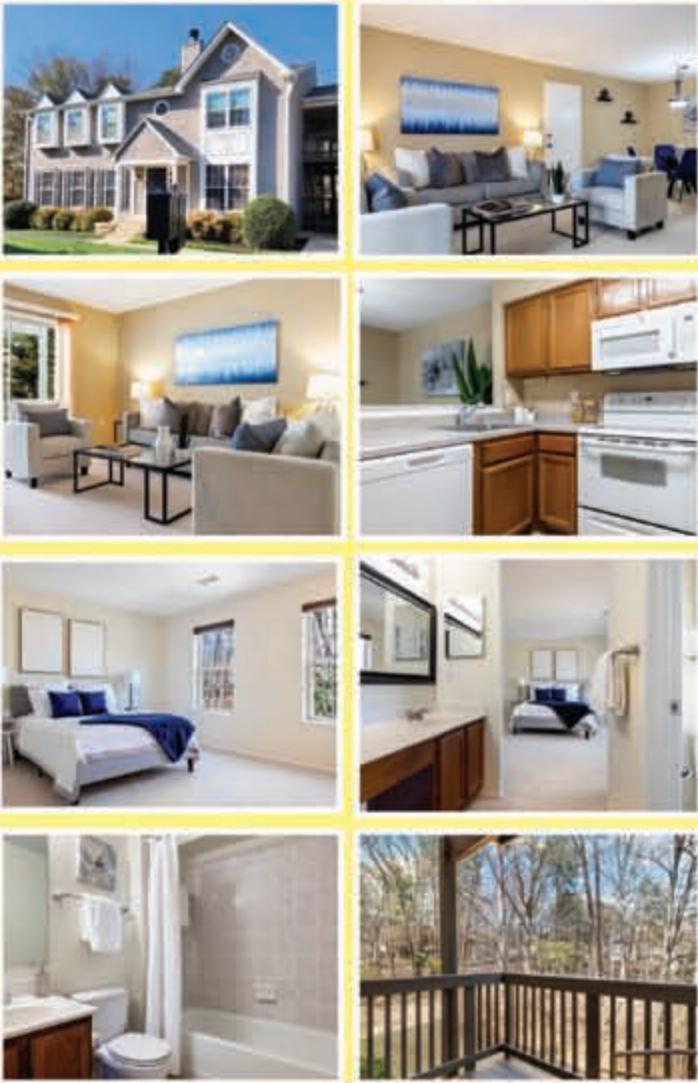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특점 Springfield 콘도

방 2, 화 2, 새 카펫, 새 페인트,
탁 트인 구조, 넓은 리빙 룸,
발코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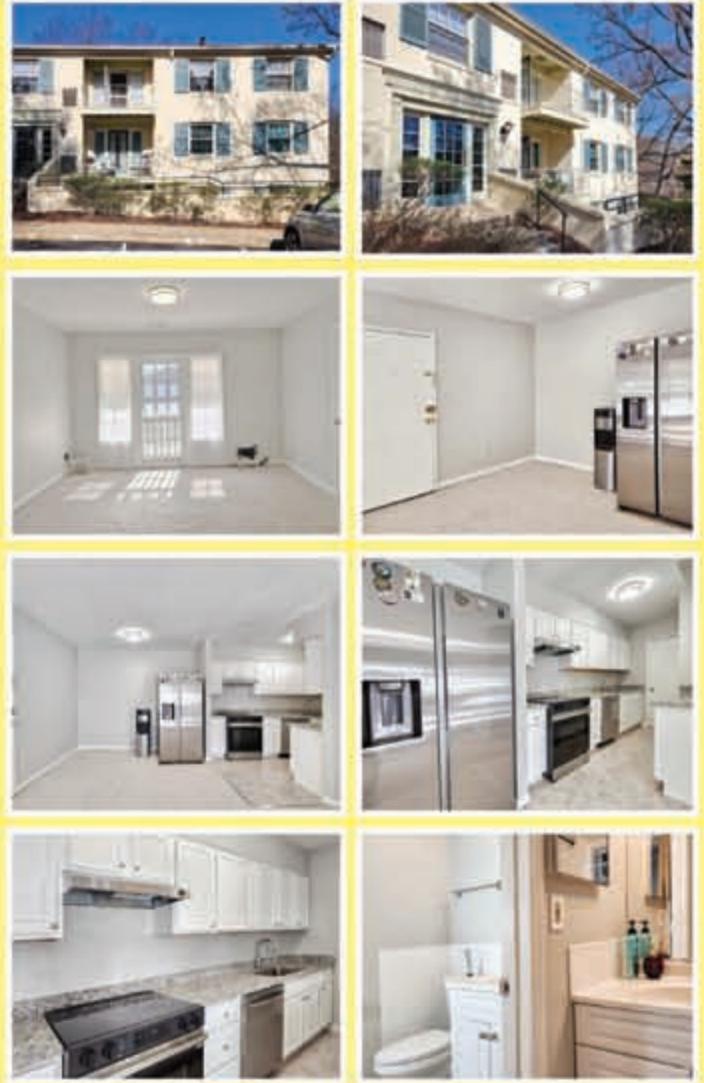
\$375,000



특점 Springfield 콘도

방 2, 화 1,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69,900



특점 Annandale 콘도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까움

\$210,000



특점 Stafford 단독주택

2011년에 지은 집, 2022년에 업그레이드, 방 5, 화 5,
차고 2, 뒷층에 Full Bath 3개, 최고급 자재로
업그레이드 한 집, 새 단지 새 동네, Walkout Basement

\$71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우리말 바꾸기

위라벨은 '일삶균형'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위라벨'을 중요시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영어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에서 온 말이다. 'Work-life balance'는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위라벨'은 각 단어의 앞 발음을 딴 우리말 신조어다.

일과 가정(퇴근 후 삶)의 균형을 찾는 경향을 '위라벨 트렌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세대를 '위라벨 세대'라 부른다.

'위라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해마다 발표하는 '베터 라이프 인덱스(Better Life Index, BLI)'의 지표이기도 하다. OECD는 주거·소득·교육·환경 등 11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국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 11개 영역에는 'Work-life balance'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BLI 순위, 즉 위라벨 순위는 41개국 가운데 35위였다. '위라벨'이 관심사이다 보니 이 용어를 무리하게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다. '호텔 위라벨 패키지' '위라벨 단지 분양' '위라벨 모바일 게임' 등은 '위라벨'을 남용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위라벨'은 콩글리시일 뿐 아니라 남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렵다 보니 '위라벨'이라 표기할 곳도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최훈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 38년도 파면이다



최훈
대기자

8년 만의 두 번째 현직 대통령 추락이다. 모두의 비극이다. 계엄이 촉발시킨 헌법재판소의 파면을 떠나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애초 5169만 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엔 준비도, 자질도, 덕성도 부족했다. 탄핵심판 국면에서 평생을 나라에 헌신해 온 군인 등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위증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가장 실망스러운 장면이기도 했다. 검증되지 않은 국가지도자가 어떤 결말을 낳는지 깨닫는 데 다시 2년 11개월이 허비됐다.

윤석열 정권 1060일은 무엇보다 대화·타협·협치·포용·통합 등 민주주의 공화국의 작동 요건과 원리에 대한 이해와 체득이 부족한 평생 검사 출신 리더의 한계를 집결한 시간이었다. 현재는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국민 기본 인권을 침해한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꾸짖었다. 자신이 그 위에서 있다고 착각했던 헌법과 민주주의에 의해 결국 그는 단죄됐다. 주범은 그였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모두가 참극의 공범이다.

보수 대통령 두 명의 잇따른 낙마라는 재앙을 맞은 국민의힘은 정치 초년병 대통령보다 더 큰 '역사의 죄인'이란 낙인을 피해가기 힘들다. 용산 눈치보기와 제자리·기득권 지키기로 날을 새워 온 자신들의 소탐대실 때문이다. 지난 2년 반 헌법(정치적 중립, 법 적용의 평등), 민주주의(대화와 협치, 삼권분립) 원칙을 거스른 윤 대통령의 적잖은 일탈들이 이어졌다. 여당 전당대회의 허수아

비 당 대표 강압, 공천 개입, 이준석·한동훈 여당 대표 체내기, 솔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외면, 무리한 의대 증원 강행, 야당과의 대화 거부, 고교·대학·검찰 인연의 후견주의 정실 공직 인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현재는 심판했다. 그런데 그 위헌·위법의 경계 순간마다 한마디 쓴소리 없이 방기해 온 이들이 누구였나. 대통령이 '제왕놀음'을 즐기도록 봉 띄워 결국 극단의 '계엄'에 이르게까지 한 책임은 늘 양지(陽地)와 낙점(落點)만을 쫓아 온 그들 내의 영혼 없는 정치였다.

무엇보다 김건희-채 상병 사건 처리에서 각인시킨 정권과 여당의 '불공정' '불평등'은 중도·젊은 층에의 확장을 스스로 차단했다. 보수 전체의 궤멸을 맞게 한 역사적 과오다. 과연 보수 세력의 대표를 자칭할 자격조차 있는가.

1987년 헌법은 "5년 단임을 보장해 국정 안정과 지속성을 꾀한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번 파면 사태로 이 헌법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도, 지속적일 수도 없게 입증됐다. 11년 만에 세 차례 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그중 두 번 파면의 참

상을 낳은 이 제왕 대통령 체제로 민주공화국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제왕 대통령을 가능케 한 87년 헌법 체제는 이전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힘든 '식물 대통령'의 위기를 맞고 있다. 너무 강한 승자독식 대통령의 파위는 야당엔 늘 모든 것을 상실할 거라는 공포감을 안겼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대통령의 오만과 권위주의 태도, 최순실·김건희 등 각종 스캔들이 터지며 다수의 분노·불신은 모두 제왕 대통령을 향해 분출되는 구조가 고착됐다. 진영 간의 끝모를 대치, 의회 내에 거대한 장벽을 세운 여소야대, 고소고발이 대체한 정치의 사법화가 무한 반복이다. 87년 헌법은 이제 '타락(墮落)의 철칙'으로만 작동할 악법이 됐다.

단 하나의 행운은 자신이 허용한 제왕 대통령을 스스로 파면시키며 역으로 자기 수명이 다했음을 알린 '87 헌법의 부고장'뿐이다. 무소불위 대통령의 힘을 분산시켜 행정부와 의회, 여야 야, 서울과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치와 조정이 가능토록 공동체의 새 계약서를 쓰지 못하면 더 이상 공화국은 없다. 거대 야당의 전환에 대한 제도적 견제 역시 충분히 도입돼야 할 터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개헌 특위와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반갑다. 누구보다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운 통합과 도약의 제7 공화국을 물려줘야 할 역사적 책무와 결단의 시간이다. 때마침 미국에서도 들려오는 시민들의 분노가 있다. "왕은 없다(No Kings in America)!"

마켓나우

트럼프는 '제2의 미국 독립'에 성공할까



김성재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

1812년 미군이 영국령 캐나다를 쳐들어갔다. 영국 해군이 미국인 선원을 강제 동원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항구 봉쇄를 통한 무역 방해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캐나다를 병합하려는 욕심도 작용했다.

미국인들은 독립을 선언한 지 36년이 지났지만, 국제사회가 여전히 미국을 제대로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그들은 미군이 온 타리오 호수를 넘어 북쪽으로 가지만 하면 해방을 바라는 현지인이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 착각했다. 전쟁은 결정적 우위 없는 일진일퇴 공방을 거듭했다. 민병대가 주축인 미군은 훈련이 부족했고 영국군도 방어적 자세로 일관했다. 미영전쟁의 항배를 가른 것은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1812년 막강한 프랑스 육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대부분의 병력을 소진한 채 철수해야 했다. 영국은 미영전쟁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여유가 생겼다.

영국은 숙련된 병병을 미국으로 보내 수도 워싱턴을 점령하고 백악관을 불태웠다. 미군도 격렬하게 저항했다. 1814년 9월 13일 볼티모어의 맥헨리 요새에서는 하루가 넘는 영국의 함포 사격에도 성조기를 지켜냈다. 이로부터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가 탄생했다.

전쟁 지속에 실의가 없다고 판단한 양국은 얼마 후 종전에 합의했다. 미국은 전쟁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해안봉쇄로 조선업과 무역에 의존하던 뉴잉글랜드 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졌다. 면화와 담배를 수출하던 남부 경제에도 타격이 가해졌다.

전쟁의 긍정적 효과도 컸다. 영국의 무역봉쇄로 보호효과가 나타나 섬유·철강 등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수출이 막힌 면화도 국내 면직업에서 활로를 찾았다. 어려운 전쟁 기간 미국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영국도 더는 미국을 무시하지 않고 차츰 대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미국의 '제2의 독립기념일'이 될 것이라 말했다. 1812년 전쟁 당시와 같이 미국 산업을 보호해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관세 부과로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늘리려 한다.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의 태동기였다. 만들기만 하면 국내에서 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20세기 미국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 해외로 이전했다. 관세 부과 이후에도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강하다. 제조업 부활의 앞날이 먼 이이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쿼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성공? 하버드 아닌 한국 식료품점에서 답을 찾다”

안혜리의 인생

논설위원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이례적인 책 한 권이 나왔다. 노벨 문학상과 풀리처상 수상자를 수없이 배출한 오랜 전통의 미국 메이저 출판사 하퍼콜린스가 출간한 한국계 제임스 리(54)의 『레드 헬리콥터』다. 기존 미국 출판시장에서 리더십 관련 경제·경영서는 백인 남성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하퍼콜린스가 비주류 동양 남성을 리더십 저자로 처음 선택한 거다. 그가 하버드 학부와 로스쿨을 나와, 미국 사회 핵심 주류로 꼽히는 대형 사모펀드 출신 변호사이자 금융인·투자자·기업가·교육가여서 고른 게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민자 부모를 둔 소수자가 주류 엘리트 사회에 편입하려고 세상의 규칙을 충실히 따르는 커녕 기존 통념에 반하는 다정함(kindness)과 호의(goodwill·회계상 무형자산)라는 생소한 경영 전략을 제시해 놀라운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망하기 직전, 그가 딱 6개월만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러 간 저소득층 흑인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위한 의류 브랜드 애슬리스튜어트였다. 두 차례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이 회사는 제임스 리 부임 2년 만에 흑자 전환, 7년 만에 엄청난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팔렸다.

업계, 인증, 젠더, 지역 등 모든 면에서 아무 접점 없던 회사에 그는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 이런 궁금증은 유통업계와 경영학계 등 미국 사회 전반이 그를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등 경영 잡지부터 보스턴 글로브와 워싱턴포스트·CNN·ABC 등이 그의 비즈니스 전략을 다뤘다. TED 등 슌한 강연 무대에 섰고, EY 최우수 기업가상 등 영예로운 상도 많이 받았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과 하워드대(존슨 기업가정신 석좌교수) 등에서 강의도 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어판 출간 후 최근 한국에 다녀간 그를 지난 4일 만났다. 평범한 경영서로 알고 책을 펼쳤다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천한 『히마트에서 울다』나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삭이다’ 저리 가라 할 그의 부모 인생 궤적에 눈물겨우 흘렸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의 시각에서 정리했다.

제임스와 레드 헬리콥터

수십억 달러(수조원)를 운용하는 보스턴 사모펀드 맨으로서 난 3년 전인 2010년 애슬리스튜어트를 파산에서 구한 당사자였다. 전문 경영인을 달달해 기업 가치를 올려야 했다. 이사회 의장으로 3년을 지켜봤지만 경영은 날로 악화했다. 이대로 가면 회사 청산까지 6주밖에 남지 않았다. 직원이 나 고객에게겐 신경 끄고 자본을 많이 회수해야 했

다. 냉혹한 사모펀드 업계에선 그게 상식이었다. 그런데 동료와 부모님 모두 “미쳤어?”라고 물을 만큼 비상식적 선택을 했다. 6개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애슬리스튜어트 본사가 있는 뉴저지 세카우커스로 날아가 직접 경영에 나선 거다.

그때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그저 애슬리스튜어트가 망하지 않았으면 했다.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 같다. 소아과 의사였던 아버지의 진료실처럼, 그리고 영어에 서툰 어머니가 들어서는 순간 바로 어깨를 펴 수 있던 한국 식료품점처럼, 애슬리스튜어트는 단순히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못 받는 흑인 여성들이 자존감을 충전하는 안전지대라는 걸, 세상엔 다정함이 더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였을까. 와이파이가 없는 허름한 본사 건물로 출근한 첫날, 40년 가까이 완전히 잊고 있던 레드 헬리콥터가 불현듯 떠올랐다. 5살 어느 날, 친구 아빠가 유치원에 찾아와 왔던 바로 그 빨간색 장난감 헬리콥터 말이다. 종종 내가 도시락을 나눠줬던 친구 아빠의 선물이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아내를 잃고 갑자기 자녀 넷을 혼자 책임지게 된 친구 아빠가 막내아들 점심을 챙기지 못할 때마다 내가 도시락을 나눠주고, 이에 레드 헬리콥터로 고마움을 전한 거였다. 다정함이 온전한 호의로 돌아왔다.

지금도 그때 나를 바라보던 부모님의 자부심 그득한 눈빛을 잊지 못한다. 어릴 적엔 누구나 알았지만 다들 잊고 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애슬리스튜어트에서의 출근 첫날 타운홀 미팅에서 즉흥적으로 깐집내내 이렇게 말했다. “다정함(kindness)과 수학(math)을 회사 중심에 두면 난국을 벗어날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한인과 흑인 사회의 반목을 고려할 때 패션 문외한인 사모펀드 출신 한국인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나도 학벌 같은 갑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마법의 묘약 없이, 단지 투명함을 바탕으로 성공을 재정의하는 것으로 비즈니스는 물론 우리 모두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이뤘다.

필리스와 한국식료품점

부모님은 한국에선 서울대 의대와 간호학과 나온 엘리트 부부였지만, 백인 동네 롱아일랜드 교외에선 모든 면에서 한두 박자 뒤쳐진 유일한 동양인 가족이었다. 어떻게든 섞이려고 어머니는 화자(한국 이름) 아닌 필리스가 됐다. 1966년에 먼저 이민 온 아버지와 합류하기 위해 막 태어난 큰아들을 시부모에 맡기고 온 필리스는 둘째인 내가 태어나고도 1년 뒤에야 다섯 살 큰아들과 재회했다. 종일 가족에 헌신하느라 필리스의 영어 실력은 늘 수 없었다.

그런데 부당한 소송에 휘말려 아버지의 작은 소아과가 위기에 처하자, 전업주부로만 25년 산 필리스는 셋째까지 모두 대학에 보낸 뒤 영어로 간호사 자격증을 다시 따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요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가정을 지

엄마의 다정함으로 경영 전략 바뀌 성공 재정의로 삶 변화까지 이끌어 ‘폭삭’ 연상 이민자 부모 희생 뭉클



지난 4월 『레드 헬리콥터』의 저자 제임스 리를 만났다. 한국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켰다. 남편의 15년 파킨슨 투병 치료비도 필리스의 요양원 의료보험 덕분에 가능했다.

백인 사이에서 말없이 미소 짓다 한인 식료품점에 가서야 달라지던 엄마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해했다. 열두세 살쯤 엄마가 철물점에 갔다가 녹 제거제가 영어로 뭘지 몰라 점원으로부터 모욕당한 적이 있다. 나는 점원과 주먹다짐 직전까지 갔다. 사장은 어떻게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어와 엄마에게 “점원을 해고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끄러워했다.

한참 뒤에 알았다. 엄마는 일상의 수모가 자신을 규정하도록 두지 않고 본인 기준으로 인생을 측정하는 사람이었다.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등 온갖 불공정을 당하고도 그토록 타인에게 다정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나약함으로 착각했던 강인함 덕분이었다. 엄마는 입대하는 이웃 청년을 위해 우리도 비싸서 자주 못 먹는 갈비를 구웠다. 배관공 등 우리 집에 온 누구든 얼음물을 쟁반에 받쳐 제대로 대접했다. 난 이런 다정함의 직접적 수혜자였다. 그리고 엄마의 이런 한국식 정(情)은 우리 삼 남매를 넘어 모두에게 확장됐다. 엄마는 식료품점에서나 겨우 당당한 게 아니라, 자기 세상에서 원래 당당한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도 잘못 생각한 게 있었다. 형이나 여

동생과 싸울 때마다 늘 “우리 다섯 식구가 전부”라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알리지도 않았는데 장례식장에 날아온 애슬리스튜어트 흑인 여성들을 보고 엄마가 말했다. “이 여성들은 나네, 그렇지?” 치료비 없이 진료받았던 아빠 환자들의 애도도 끊이지 않았다. 온 세상이 그방에 있었다. 언제나 다섯 이상이었다. 엄마가 틀렸다.

다시, 제임스와 애슬리스튜어트

갑작스런 체장암 선고 수개월 만에 돌아가신 엄마의 장례식 후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 임직원 상대 강연에서 한 직원이 물었다. “남들 가치판단에 휩쓸리지 않고 어릴 적 알던 단순한 진리가 옳은 해법이라는 관점으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주저 없이 답했다. “엄마와의 연대감.” 한국말 서툰 아들과 영어 서툰 엄마와의 언어 장벽은 때로 답답하긴 했으나 우리 유대를 방해하지 못했다.

엄마는 나를 무조건 사랑했지만 억누르진 않았다. 스스로 선택하고 싶을 여지를 허락했다. 하버드 졸업 후 세상이 하버드 출신에 기대하는 번듯한 직장 대신 연봉 1만2500달러짜리 고교 선생으로 2년 근무할 때도 그랬다. 아버지는 평생 본인 삶의 결말이라 여긴 안정과 소속감을 자식들은 누리기 바랐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 역경은 내게 위험을 감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니냐”고 대들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달랐다. “괜찮아. 내버려 두요.”

하버드 로스쿨 시절 만난 아내 메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부유한 백인 가정에서 자란 명문 기숙학교 필립스 앤도버 출신이라 그런지 1학년 여름 인턴을 쉽게 구했다. “왜 일자리 못 구했느냐”는 아버지한테 “인맥 없잖아요”라고 내뱉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시켜도 아이들은 세파에 다치기 마련인데, 부모 마음에 못을 박았다.

국선 변호사 되려고 로스쿨에 갔지만 매년 4만 달러씩 쌓이는 빚 앞에서 결국 사모펀드를 택해 수십억 달러 굴리며 전용기 타고 다닐 때도 부모님은 돈이란 세속적 성공을 마냥 좋아하지 않았다. 엄마는 되려 “남들이 네 성공을 진정 기뻐해야 진짜 성공”이라 했다.

리더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수년, 심지어 수세대에 걸쳐 평가받는다는 걸 안다. 엄마 삶을 보며 그걸 깨친 덕분에 난 애슬리스튜어트에서 상대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다정함으로 자각 있는 여성들의 잠재력 발휘를 도우며 기업을 성공적으로 회생시켰다. 엄마가 없었다면 “너는 나가”라는 배제 대신 “같이 가자”라는 다정함을 떠올리지 못했을 거다.

손익계산서와 달리 삶의 총합인 대차대조표엔 과거 평판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쓰여 있다. 인생의 진정한 자산과 부채를 재평가해서, 성공을 재정의하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길 두려워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 동 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엄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1.2 M

Corner Lot
Many Upgraded

웃브리지 타운홈

\$495,000

방3, 화3.5
Lake Ridge 커뮤니티

COMING SOON 리스팅

굿 로케이션 집 수리중입니다.

- * Annandale 싱글 홈 \$890,000
- * Springfield 싱글 홈 \$800,000
- * South Riding 싱글 홈 \$1,2M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시 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부적절하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현재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뒤늦게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수궁이 가나,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새로 지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 의결될 수 있다. 현재의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헌재가 결원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라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한 대행이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직후인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몫이

었다. 당시 황 대행은 대통령 몫인 박찬철 전 헌재 소장의 후임은 지명하지 않았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인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회동해 내란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이 후보자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가 이 시기에 헌법재판관을 맡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은 명백한 위헌이고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하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행에겐 6월 3일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통상 분야 경험 많은 한 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말았다.

한 대행은 이번 결정을 재고(再考)하고, 대선 국면과 불안한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할 길 바란다.

마은혁 임명 많다가 이제 와서 인사권 행사한다니
이완규 계엄 후 안가 회동도 논란... 지명 재고해야

헌재가 결원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라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한 대행이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직후인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몫이

었다. 당시 황 대행은 대통령 몫인 박찬철 전 헌재 소장의 후임은 지명하지 않았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인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회동해 내란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이 후보자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가 이 시기에 헌법재판관을 맡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은 명백한 위헌이고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하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행에겐 6월 3일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통상 분야 경험 많은 한 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말았다.

한 대행은 이번 결정을 재고(再考)하고, 대선 국면과 불안한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할 길 바란다.

막 오른 6·3 대선, 대한민국 새 틀 짜기 계기 돼야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3년 만에 대선을 또 치르게 됐다. 두 번 연속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어제(8일) 출마 의사를 밝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도 준비하고 있다. 현 제왕적 대통령 체제에서 대선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긴 탄핵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사회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던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관세전쟁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 미국이 오늘(9일)부터 부과하는 25% 상호관세는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산업에도 짙은 먹구름을 드리운다. 외부 충격을 견디려면 내수시장이라도 살려야 하나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은 정쟁의 벽에 막혀 있다.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힘을 모으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원인을 분석하면 38년 전 수립한 낡은 헌법 체계로 귀결된다는 것이 여러 헌법 전문가의 분석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반목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각 당 대선 후보군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

까지 개헌 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이런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우 의장 제안을 거부하면서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대표 주변에선 개헌을 ‘내란 동조’로 몰아가며 감정적 발언까지 쏟아내니 개탄스럽다. 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 의장을 향해 “개헌? 개나 줘라. 그 입을 다쳐라”고 극언을 하는가 하면,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고...”라고 말했다. 다수가 공감하는 개헌 필요성을 외면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우 의장까지 독설 대상으로 삼으니 앞으로 선거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스럽다.

이 대표는 당내 ‘막말 세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반성 없이 국민의 재선택을 바라는 국민의힘도 염치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6·3 대선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돼버린 극한 대립을 걷어내고 국민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는 전기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개헌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만이 정쟁 막장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관세전쟁 등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만큼은 각 정당이 선거 기간에도 대승적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21대 대선이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50여 일 후, 어떤 정부 나올까



고정애의 시사각각 時視各角

50여 일 후 새 대통령이 나온다. 그가 초라한 바닥을 드러낸 대한민국 정치를 온전히 복구해낼까. 진정 그러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시대를 증폭한 버전의 내정(內政)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막대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구조 속에서 사생(死生)의 극단 정치와 동원, ‘관직 사냥’을 고리로 한 거대한 배후 이익 집단들의 활개 등이 작동하는 복잡다단한 정국이어서다. 그나마 활로였던 개헌마저 가물가물해졌다.

우선 190석을 거머쥔 대통령의 등장 가능성이 있다. ‘1987 체제’에서 200석 내외의 여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민주당 정권이 오랫동안 증오한,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216석)이 있었다. 당 내부는 복잡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차기 주자인 YS(김영삼)에게 밀리곤 했다. 2008년엔 이명박 대통령이 170석 안팎의 여당을 이끌었지만, 종종 최종결정권은 박근혜 의원이 쥐었다. 본회의장에서 박 의원이 반대 발언을 한 후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일도 있다.

이재명·민주당 정부가 현실화한다면 사상 초유의 일극 체제 정부 여당이다. 이미 야당 시절 뒤통을 할 수 있고, 뒤통을 한다는 걸 보여줬다. 수십 건의 탄핵안부터 각종 법률안, 심지어 예산안까지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여당이라면 더 강력한 효율성을 보일 것이다. 오랜만에 ‘정부안=입법·시행’일 수 있다. 하지만 협치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민주당을 향해 이런 비판을 했다.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된다고 존중·관용·자제·대화·타협이 생겨날까. 당과 보단 국민을 앞세울까. 혹은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고 계속 믿는 건 아닌가.

이미 ‘개팔’들은 ‘내란행위자 처벌특별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조사위와 특검을 운영하고 특별재판부까지 뒤편 관행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해보자는 내용이다. 무엇이 내란 행위일지 이들이 정할 것이다.

이들이 어디로 향하고 어디서 멈출지 순전히 이들의 선의에 기밀 수밖에 없다. 행정부·입법부를 장악한 데다 사법부의 일부 법관들도 이들의 자기장 내에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이 권력의 팽창 주의적인 본성에 저항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도적 자제’란 전례를 깨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건 공포감이었을 것이다.

현재 여론을 보면 가능성은 적지만, 민주당 대통령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여소야대 구조는 변함없다. 역대 대통령은 여소야대를 ‘구속책’으로 여겼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상상 불가의 수단을 택한 게 계약할 일이었지만, 이전 대통령들도 논란 있는 선택을 하긴 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1년여 만에 3당

효율적이나 견제 힘든 막강 정부 여전한 여소야대 속의 약체 정부 어떤 미래·정치 나올지 고뇌해야

합당을 했고, DJ도 ‘의원 패배기’로 공동 정부를 이끈 JP와 함께 과반 여당을 만들어냈다.

새 대통령에게 다른 묘수가 있을까. 야마도 대화·실득·호소 외엔 없을 것이다. 다 잡았던 권력을 눈앞에서 놓친 거대 야당이 협조할까. 야당도 혼란스럽지 않을까. 자칫 지금보다 더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건 아닐까. 놀라운 정치력과 내내심의 대통령만이 그나마 방향을 잡아갈 텐데, 지금의 범보수 후보군 속에 그런 인물이 있나. 의문부호뿐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아리하다. 견제와 균형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독주·질주가 가능한 막강 정부와, 구조적 불능·마비에 빠질 것 같은 약체 정부가 기다리고 있다. 어느 쪽이 나올까. 6월 3일 투표지를 마주할 때까지 우리 모두, 우리의 미래와 정치에 대해 자기성찰(soul searching)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www.joongAng.com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m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m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대림인쇄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요미우리, 한국 매일경제)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p>1. 웃은 하이, 프로스피어 2025 새싱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p>	<p>6. Clifton 싱글 \$950,000 방 4, 화 3.5, 차고 2, 3,300sqft, 센터빌 하이 세입차량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지붕, 새 HVAC</p>	<p>11.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방 4, 화 4.5, 차고 2, 4433 sqft, 2004, 0.3acre, 페리오, 스크린데</p>
<p>2. 찬들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p>	<p>7. 맥클린 하이, 러서리 싱글 \$2,799,000 방 6, 화 6.5, 6,0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디자인, 맥클린하이, 롱웰우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p>	<p>12. 맥클린 콘도 \$485,000 밝고 환한 8층, elevator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차고 2, 테라스 방 2, 화 2, 1335sqft</p>
<p>3. 찬들리 하이 싱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상당근처, 66/28/50/29</p>	<p>8. 맥클린 하이 싱글 \$2,599,000 방 7, 화 7.5, 6,1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 고품질 디자인, 맥클린하이, 롱웰우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p>	<p>13. 게인스빌 콘도 \$425,000 Open House 4/13(SUN) 1-3pm @7168 Little Thames Drive, Gainesville, VA 20155 방 3, 화 2.5, 차고 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p>
<p>4. 센터빌 싱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델음,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솔라 패널, 6,228sqft</p>	<p>9. 페어팩스 중심 타운 \$825,000 방 3, 화 3.5, 3,000sqft, 236/66/29/50, GMU, 지하위킴아웃, 락, 펜스</p>	<p>14. 맥클린 하이 싱글 렌트 \$5,900 방 5, 화 3, 카포치 2, 펜스, 전부 모던리모델링, 6/1일주, 메트로 인근</p>
<p>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화 4, (메인/ 풀베스),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p>	<p>10. 찬들리 하이 타운 \$599,999 방 3, 화 3.5, 1,980sqft, 맥, 위크아웃 지하 (방, 풀베스), 50/286</p>	<p>15.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형 오피스,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성업중 미장형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일</p>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JUNO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측 앞 빌딩 3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 광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April 9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독거노인 서비스·비용 낮춘 '코지 홈' 주목

시니어 리빙 트렌드 7가지

시니어에게 주거와 건강관리, 여가활동,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리빙' 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시니어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런 시설은 고비용 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최근에 등장한 미래형 시니어 리빙의 새로운 트렌드를 7가지로 정리했다.



알츠하이머 등 인지장애 케어 유닛 급증세
내 집에 살면서 서비스받는 HCBS 도입 늘어

▶**중간소득을 위한 '코지 홈'**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중간수준 은퇴 저축액은 20만2000달러에 불과하다. 55세에서 64세 사이의 40% 이상은 은퇴 자금이 전혀 없다.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수입과 자산이 적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지 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소규모 그룹홈 형태에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의 코지 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이나 공동 주택, 저렴한 입주비, 개인 서비스를 갖추고 선택권을 더 많이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시니어 주택-케어 향상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 전국시니어주거케어투자센터(NIC)에 따르면, 중간소득층 시니어의 수는 2029년까지 두 배로 늘어난다.

▶**독거 시니어 지원**
독거 시니어는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사는 노년층을 뜻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노년층의 약 4분의 1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독거 노년층의 42%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며 지원을 받는 노년층보다 정신 건강이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

시니어 리빙 시설은 이를 반영해 재정 계획과 자원봉사 매칭, 홈 케어 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등 독거 노년층이 미

래 로드맵을 만들 수 있게 돕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 시니어 리빙 시설은 부분적이라도 독거 노년층 전용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블루 존의 등장**
생물학자 레로이 후드 박사가 시작한 블루 존(Blue Zone) 운동에 기반한 장수 커뮤니티는 노년층 증가에 따라 새롭게 등장했다. 장수 커뮤니티의 기초는 후드 박사가 개발한 '과학적 웰니스'로 질병 예방을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예방은 '과학적 웰니스'의 핵심 중 하나다. 알츠하이머는 65세 이상의 사망 원인에서 다섯 번째로 많기 때문에 많은 시니어 리빙 시설들은 뇌 건강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장수 커뮤니티는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이 모여 혈압 같은 생체 지표인 바이오마커를 측정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즐거운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삶을 목표로 한다. 시니어 리빙 시설은 건축 회사와 식품 서비스 업체, 웰니스 코칭과 제휴해 주민들에게 생활 공간과 식사, 신체-정신 건강을 향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노년층 대부분이 자신의 집이나 커뮤니티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현실에서 집과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HCBS)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HCBS는 홈 헬스케어, 홈 케어, 호스피스, 노년층을 위한 포괄적 관리 프로그램인 PACE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지글러 투자은행의 시니어 리빙 리포트에 따르면, 200개의 비영리 라이프 플랜 커뮤니티 중 61%가 HCBS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HCBS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몇 년 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생활 방식

은 시니어 리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지만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면 사회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고립을 줄이며 평생 학습을 촉진하고 공동체 내 소속감을 높여 노년층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한다. 세대 간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세대 통합'의 최근 연구에서도 여러 세대가 어울리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커뮤니티 내 식당과 카페, 피트니스 공간을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대학생 인턴십과 로컬 농산물 시장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도록 한다.

▶**주목받는 '기억 케어'**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노년층을 위한 '기억 케어(Memory Care)' 유닛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장기 요양 프로그램인 '기억 케어'는 특히 '지속 케어 은퇴 커뮤니티'(CCRC)에서 수요가 높다. 건강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신체 변화에 따른 서비스를 하는 CCRC는 '평생 플랜 커뮤니티(Life Plan Community)'로 불리기도 한다. NIC에 따르면, CCRC 내 '기억 케어' 유닛 수는 지난해 1.4% 증가했으며 유닛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시니어 리빙 시설은 고령층의 건강과 개인적인 취향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예측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와 자원봉사 매칭, 시설 내 일자리 기회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가능해졌다. 스마트 홈 기술과 원격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년층이 직접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안우희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미토콘드리아 DNA 교정, 유전병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지만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다. 생화학자들은 세포가 최소 수천 개에서 수만 개에 달하는 단백질들과 이들 각각에 대한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 등 수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작은 기계장치로 간주한다.

인간의 몸은 대략 4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는데 이 모든 세포들이 실은 단 하나의 세포,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형성된 수정란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서 만들어진다. 사실은 경이롭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은 최소 수천 개에서 수십 조 개 세포들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들이다. 이들은 세포 하나가 독립적인 생명체인 세균에 비해 훨씬 크고 기능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세균과 동식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포핵의 존재 여부다. 세균은 핵이 없어 DNA가 세포 내에 다른 물질들과 섞여 있는 반면, 동식물 세포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세포핵 안에 DNA를 따로 가지고 있다. 핵이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 핵이 없는 세포를 원핵세포라 한다.

체중 10% 차지하는 미토콘드리아

진핵세포 내에는 세포핵 외에도 미토콘드리아·골지체·리보솜·세포질 등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 이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한다. 발전소가 석유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는 탄수화물을 산화해 ATP라는 물질을 생성한다. 이는 세포가 작동하고 증식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된다. 미토콘드리아

에서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배출된다.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체세포 하나에 대략 1000~2000개씩 들어 있다. 난자는 체세포보다 훨씬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 난자 하나에 약 1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자가 정자와 만나 수정란이 되고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핵과는 달리 고리 모양(원형)의 DNA를 여러 개씩 가지고 있다.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1만6500여 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된 원형 폴리머이며, 세균의 DNA와 같은 모양이다.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 RNA도 세균의 그것과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반면 세포핵의 DNA는 선형이며, 세포핵에서 유래한 리보솜 RNA는 미토콘드리아와 세균의 리보솜 RNA와는 특성이 다르다.

이러한 점들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을 시사한다. 내공생설에 따르면, 약 20억 년 전 원시 진핵세포가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을 삼켰으나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공생하게 되면서 진핵세포가 탄생했다고 한다. 또는 세균이 원시 진핵세포에 침입한 후 공생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숙주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에너지를 사용하며 더욱 크고 복잡하게 진화했고, 결국 동식물과 같은 다세포 생물이 출현할 수 있었다.

돌연변이 자주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핵 DNA



인공지능(AI) 그림 생성기 '달리(DALL-E)'를 이용해 그린 진핵세포의 이미지. 노란색이 미토콘드리아다.

진화에 필수인 미토콘드리아 DNA 돌연변이 유전질환 초래 모계유전, 성별 발생빈도 달라 유전자기위 기술론 치료 못해

에 비해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한다.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DNA 돌연변이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돌연변이는 암과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유전질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인 남성의 양안 실명을 초래하는 레버 시신경병증(LHON)은 미토콘드리아 DNA의 1만1778번째에 위치한 시토티신 염기가 티민 염기로 치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

른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인 리 증후군은 신생아에서 관찰되는데, 대부분의 아기가 진단 후 1~2년 내에 사망한다. 당뇨병자 중 대략 1%도 미토콘드리아 DNA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데, 같은 변이가 청각 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수십 여 종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이 100여 개의 서로 다른 미토콘드리아 DNA 돌연변이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들 유전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없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핵 DNA와는 달리 아버지로부터 자식으로 전달되지 않고 어머니로부터 유전된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도 모계로만 유전되는데 어머니는 건강하지만 아들이 환자인 경우가 흔하다. 같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나 성에 따라 질환 발생 빈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대략 500명 중 한

명 비율로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내외 연구진들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교정하는 기술을 잇달아 개발해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의 연구와 치료에 돌파구가 열렸다. 세포핵 DNA 교정에 널리 쓰이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미토콘드리아 DNA 교정에 무용지물이었으나 가이드 RNA가 필요 없는 단백질 기반 염기교정 효소들이 개발되면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인간배양세포와 실험동물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변이를 도입해 질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질환 모델은 질병의 기작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실험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

특히 레버 시신경병증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물 전달이 용이한 시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 DNA만 교정하면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김진수 KAIST 교수



•미토콘드리아 DNA: 세포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DNA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진핵세포에 있는 DNA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모계로만 유전된다. 따라서 관련 유전질환도 모계로 이어진다.

건강칼럼

일차성 두통이란 뇌출혈이나 뇌종양과 같은 이차적인 원인 없이 생기는 두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이 널리 알려져 있다. 통계에 의하면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은 대부분 누구나 일생에 한 두 차례 평균적으로 경험한다고 한다.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면 머리에 짝이는 머리띠나 밴드를 두른 듯한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두통으로, 말 그대로 머리 주위 근육의 긴장 및 근육의 수축으로 나타나는 두통이다.

보통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다른 여러 원인들에 의해 유발되는 두통으로 그 치료 또한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와 달리 편두통은 머리 속, 정확히는 뇌를 구성하는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

의 문제로 야기되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두통 증후군이다.

과거에는 편두통을 머리 주의 혈관의 과도한 이완과 수축으로 야기된다고 하여 '혈관성 두통'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적이 있다. 지금은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 편두통은 뇌 자체의 질병, 즉 뇌질환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질병의 개념이 바뀐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또다른 개념의 일차성 두통으로 이름하여 '지속성 반두통'과 'SUNCT'이라고도 불리는 '결막 충혈과 눈물을 동반

일차성 두통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반한 단기 지속성 신경통형 두통 발작'이라는 긴 이름의 두통 증후군이 있다. 이 새로운 이름의 두통은 뇌의 깊숙한 곳의 중요한 구조물의 하나인 뇌간에서부터 발생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뇌간은 중뇌, 교, 그리고 연수의 세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뇌간의 뒷 부분에는 운동 및 평형감각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뇌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로는 뇌로부터 나오는 척수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척수가 이어지고 있다. 위로는 대뇌, 뒤로는 소뇌, 아래로는 척수와 연결 되어진 뇌간이라는 구조물에는 여러쌍의 뇌신경이 나오는데 가운데 가장 큰 신경 중 하나가 바로 삼차신경이다.

이 삼차신경의 신경 다발에 포함되어 있는 자율신경의 이상에 의해 매우 독특한 증상들이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다는 점이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게 되었다.

최근 국제 두통 학회에선 위에 열거한 특이한 이름의 두통 증후군을 통틀어 '삼차신경 자율신경성 두통'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지속성 반두통'이나, 'SUNCT'는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두통이라고 할 수 있다.

만성 편두통을 위시하여 일반적인 진통제로 다스리기 쉽지 않은 두통의 대부분은 다름 아닌 새로운 개념의 '뇌 질환'이라는 셈이다. 삼차신경 자율신경성 두통(TACs)과 같은 질병 및 이와 유사한 두통 증후군은 치료의 시작과 더불어 극적으로 호전되므로,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상담 문의: 571-620-7159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항·뜸·한약 (치료제, 보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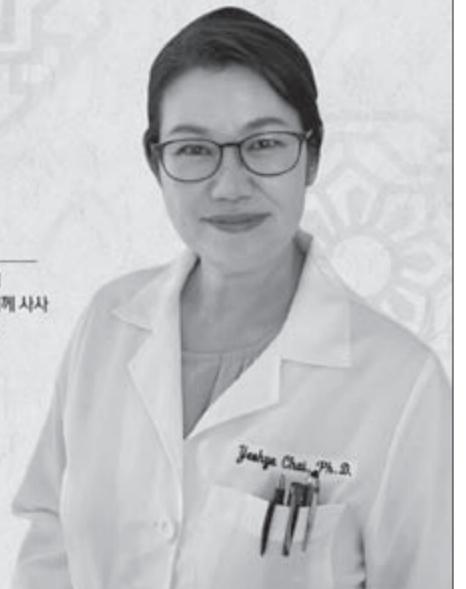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외대사 연경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나 죽으면 30년된 이 가게도 끝” 전통시장 70대 한숨...

“여기서 60대면 청년이야, 청년” 전라남도 고흥군 등암마을 노인회관에는 네 개의 방이 있다. 그중 본관 2층에 위치한 방을 이곳 노인들은 “청년방”이라고 부른다. 지난 17일 80대가 모이는 1층 방에서 만난 송춘삼(82) 부녀회장은 “60대는 어디다며 따로 방을 써요 글썽. 90세 이상도 별도로 모이는데, 그 좁 돼야 나이 좀 먹었네 할 수 있지”라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고령인구 비율 1위는 27.4%인 전남이다. 그중에서도 고흥군은 44.3%로 전남에서 가장 높다. 전체 주민 중 무려 절반 가까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곳도 고흥군(78명)이다.

“초고령사회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10년 뒤엔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초고령사회 진입 석 달째를 맞아 찾아간 전남 고흥은 전문가들의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젊은층의 지속적인 감소, 노인 고독사와 일자리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고민 등 조만간 한국 사회 전반에 확산될 초고령사회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3월 중순에 때아닌 폭설이 내렸던 지난 18일 허리를 굽혀 눈을 치우던 80대 박모씨도 “청년이 귀하니 오늘처럼 도로가 막히면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흥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팔고 있는 70대 정현영씨는 “내가 죽으면 30년 넘게 지켜온 이 가게도 끝”이라며 “아들도 고흥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갈 환경이 안 되다 보니...”라고 말을 흐렸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군에서도 드론 축제 등 주말마다 각종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

이런 게 잘 되면 젊은이들도 많이 찾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고흥군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드론 산업 육성과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미래전략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지금이야 노인들끼리 의지하며 지내고 군에서도 여러 지원을 해줘 그나마 살 만하지만 미래가 걱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명동만(86) 등암마을 노인회장은 “강사가 노인회관에 주기적으로 와서 운동도 가르쳐 주고 전통 떡만들기 등 일주일에 사나흘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래도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동네 활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고 우려했다. 옆에 있던 동갑내기 신채균씨도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병원도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니 다들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고흥군, 드론산업·스마트팜 육성 심혈신씨의 말처럼 건강과 의료 대책은 고령층의 가장 큰 현안이자 관심사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고흥군민들이 자주 찾는 고흥종합병원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 차주흔 고흥종합병원 총무과장은 “노전문요양병원도 함께 영 중이라 노인분들 방문이 갈수록 늘었지만 의사는 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백방으로 문하고 있지만 돈

65세 이상 비율 1위, 전남 고흥 르포 “젊은이 일하며 살아갈 환경 안 돼” “군 지원 덕 살 만하지만 미래 걱정”

고흥종합병원 “의사 턱없이 부족” 전국 요양병원은 4년새 200곳 급감

“고속도로 뚫리면 도시 출퇴근 가능” 교통 인프라·주거 환경 개선 주력

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오겠다는 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런 문제는 단지 고흥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 될 것인 만큼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의 요양병원은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다. 2020년 1583곳에서 지난해엔 1342곳으로 200곳 넘게 급감했다. 행위별로 수가 적용을 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진찰료나 약제비 등이 1일당 정액수가제로 묶여 있다 보니 노령층 진료가 늘어날수록 병원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허준수 교수는 “초고령사회일수록 중요한 게 돌봄 의료 서비스”라며 “노인분들이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학계에선 “지금의 획일적인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75세 이상, 85세 이상 등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고독사 문제도 초고령사회의 당면 과제 중 하나다. 광주에서 살다 4년 전 고향인 고흥으로 돌아왔다는 70대 정모씨는 “도시가 시설은 더 좋지만 늘 단절된 삶을 살다 보니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더 많이 느꼈다”며 “여기는 누가 돌아가시면 마을 방송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끼리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강해 마음은 한결 편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며 “교통이 좋아지면 자녀들도 좀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야 할 때” 고흥군이 젊은 세대가 인근 대도시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교통 인프라와 주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5도2촌’을 초고령사회의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고흥에서도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정주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외로움’을 달기 위해서는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보다 지자체 차원의 자치적 실질적인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라 지적되나온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도 노인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실제로 2022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 일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이로 인해 노인 산재율까지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미 2023년 산재 보상을 받은 재해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52.1%를 차지해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선 고령 노동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근무지 조명을 연령대에 맞게 조절하는 등 보다 섬세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령층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원동욱 기자



The Centers for Advanced Orthopaedics
The Orthopaedic Foot & Ankle Center

김창용 발 전문병원

발이 아프시면, 이제 김창용 발 & 발목 전문의에게 맡겨 주십시오!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 이 발이 불편한 것을 그냥 참거나 넘기지 마세요. 발이 불편하시면 일단 거동이 어렵게 되고, 생활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 당뇨병 발 관리
- 발 및 발목 골절
- 망치 발가락
- 당뇨 신발
- 상처 치료
- 건막류
- 기능성 발 보조기
- 족저근막염
- 사마귀 및 궤양
- 관절염

족부의학 전문의
Dr. Chang Yong Kim D.P.M.

Dr. 김창용 원장

- Kent State University, College of Podiatric Medicine
- Podiatric Surgery Residency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Wound Care Fellowship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Certified
- Hyperbaric Medicine Team Training Course Certification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예약 문의 703.394.4818

통역 서비스 제공 www.footanklecd.com

2922 Telestar Court, Falls Church, VA 22042 / 1550 Wilson Blvd, Suite 105, Arlington, VA 22209

연둣빛깔 씹쌀함

봄나물 귀족, 두릅



박상현
맛칼럼니스트



우리 민족은 절기에 따라 그 계절에 가장 적합한 음식을 먹는다. 이를 절식(節食)이라고 한다. 자연의 시간에 순응하며 살아온 민족이 경험적으로 축적한 일종의 빅 데이터의 결과물이다. 나는 가끔 이 빅 데이터에 '왜?'라는 의문을 품는다. 어떤 식재료가 가장 많이 날 때 먹는 행위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이 논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두릅의 쓴맛, 사포닌 성분 때문
올해 정월대보름(2월 12일)에 오곡밥과 묵나물을 먹을 때도 같은 의문을 품었다. 왜 묵나물일까? 묵나물은 지난해 거두어서 말려둔 나물이다. 아직 땅이 얼었으니 구할 수 있는 것이 묵나물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굳이 계절성이 없는 음식에 계절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을까?

전통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조상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 정월대보름이 지나면 얼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생명이 땅을 뚫고 나온다. 날이 풀리기 무섭게 산과 들은 봄나물 천지가 된다. 그렇다. 대식가였던 우리 선조들은 푸른 봄나물을 영접하기 전에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지겨운 묵나물을 털어 잡수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를 푸르고 싱싱한 봄나물을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창고대개방' 행사를 결론 내렸다.

창고를 비웠으니 이제 채울 차례. 우리 민족은 정말 진지하고 약삭같이 봄나물을 영접했다. 우선 가짓수가 방증한다. 산과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란 풀을 '푸새'라 하고, 무·배추·상추·마늘·고추처럼 사람이 심어서 거둔 것을 '남

새'라 하며, 이 모두를 통틀어 '푸성귀'라고 한다. 따라서 푸성귀라면 무엇이든 나물의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에 식용할 수 있는 식물은 450여 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나물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먹는 부위가 달랐고, 먹는 부위에 따라 채집 방식 또한 달랐다. 뿌리째 먹는 나물은 캐고, 뿌리를 먹지 않고 잎을 먹는 것은 뜯고, 고사리처럼 줄기를 먹는 것은 꺾었다. 조리법 역시 재료의 특성에 따라 낱것 그대로 사용하는 것, 데치는 것, 볶는 것 등으로 나뉘었는데 어느 방식을 선택하건 재료 본연의 향과 식감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맛을 내는 양념 역시 간장·된장·초고추장·소금 등을 최소한으로 사용했으며, 심지어 재료와의 궁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이처럼 나물의 종류, 채집 행위, 조리법까지 섬세한 구분한 사례는 세계의 어떤 식문화에서도 찾아보기 드물다. 그래서 나는 K푸드의 마지막 히든카드는 나물이 될 것이라 항상 주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봄나물 가운데서도 계급이 전혀 다른 나물이 있으니 두릅

나무의 새순이다. 고귀한 신분이고 생명 그 자체다. 두릅은 야생에서 자란 두릅나무의 순을 직접 따서 먹어봐야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몇 년 전 경상남도 산청군에 속한 지리산 자락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산꾼을 따라 야생 두릅을 처음 접했다.

두릅나무 가지 끝에서 봉긋 솟아오른 새순을 '정아'라고 하고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새순을 '측아'라고 하는데 같은 나무에서 나는 새순이라도 정아와 측아는 향과 질감에 있어, '이게 정말 같은 나무에서 난 새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물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다르다.

야생 두릅나무의 정아를 살짝 데쳐서 소금 몇 알을 뿌려 먹으면 농축된 향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몸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느낌이 든다.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는 씹쌀함은 쓴맛에도 등급이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그 쓴맛의 배후가 면역력 증진을 돕는 인삼에 풍부한 사포닌이라는 사실을 알면 더욱 각별하다. 덕분에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실감하게 된다. 유럽 사람들이 봄의 귀

하지만 산에서 자생한 두릅은 매우 귀하고 생산량도 적다. 요즘 시장에서 유통되는 두릅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한다. 비닐하우스라는 인공적인 시설물에서 새순을 틔운다는 사실만 다를 뿐 두릅이 가져야 할 향과 식감은 큰 차이가 없다. 흥미로운 점은 야생에서 자라는 두릅은 4월 한 달 정도만 채취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두릅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일년 내내 거둘 수 있지만, 역시 자연의 시간을 따른다.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물, K푸드 마지막 히든카드 될 것
덕분에 두릅은 여전히 4월의 귀족이다. 산림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임산물생산조사'에 따르면 두릅 생산량은 2021년 1383t, 2022년 1644t, 2023년 2035t으로 해마다 평균 20% 가량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릅나무의 마디를 15cm 단위로 잘라 이를 수경 재배함으로써 두릅나무 한 주에서 10~15개의 두릅을 얻을 수 있는 '단마디 축성재배법'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가 이 재배법에 특히 적극적이다.

봄 두릅의 가치를 알고 이를 즐겨 먹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은 그들의 전통적인 조리법인 튀겨서 한입에 먹는 덴푸라로 즐기기 때문에 두릅의 크기를 작게 관리한다. 반면, 야생 두릅처럼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는 한국은 두릅을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강회를 선호한다. 실제로 두릅의 맛과 향을 즐기기에 데침과 튀김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그럼 지금부터 4월의 귀족을 함께 영접해 보시라.

4월 한 달만 나오는 두릅나무의 새순

가지 끝 새순은 '정아', 측면은 '측아' 살짝 데쳐먹으면 몸 깨어나는 느낌 하우스 두릅, 야생과 향·식감 비슷 한국은 강회로 일본은 튀겨서 즐겨



일본은 두릅을 튀김(왼쪽 사진)으로, 우리나라는 데쳐서 초장 찍어먹기를 즐긴다. [사진 박상현] 쪽으로 아스파라거스를 뽑은 것은 두릅의 진가를 몰라서 빚어진 오류가 분명하다.



[사진 박상현] 쪽으로 아스파라거스를 뽑은 것은 두릅의 진가를 몰라서 빚어진 오류가 분명하다.

박상현 음식의 탄생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는 것에 관심 많은 맛칼럼니스트다. 현재 사단법인 부산로컬푸드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Care People Home Health

Care People Home Health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5/5 ~ 5/9 → 전화 예약 필수!

<p>Centreville (Main Office)</p> <p>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p>	<p>Annandale (사랑방)</p> <p>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p>	<p>Annandale (V)</p> <p>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p>	<p>Gaithersburg (MD)</p> <p>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p>
--	---	--	--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눈 뜨자마자 SNS · 숏폼 ... 이 호르몬의 노예

정보의 홍수에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시대다. 책은 여전히 많은 이가 신뢰하는 지식의 창고다. 깊은 통찰력을 지닌 저자의 지혜는 건강한 삶의 멘토로 삼기에 손색없다. '북픽헬스'에선 책과 저자에게서 얻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진정한 웰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보의 홍수에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시대다. 책은 여전히 많은 이가 신뢰하는 지식의 창고다. 깊은 통찰력을 지닌 저자의 지혜는 건강한 삶의 멘토로 삼기에 손색없다. '북픽헬스'에선 책과 저자에게서 얻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진정한 웰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영상 봐봐, 도파민 터진다” “난 이미 도파민 노예라 긴 영상 못 봄” “과제 하다가 도파민 충전 좀 하려고 껌 씹”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도파민’은 일상용어다.

도파민이 뇌에서 보상과 동기부여에 관여한다는 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 밈의 단골 소재가 됐고, 자극과 쾌락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도파민이 무엇이고,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도파민 밸런스』(부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숏폼, 음식, 쇼핑, 도박처럼 특정 행위나 물질에 대한 집

착과 의존, 과사용과 같은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도파민 균형을 되찾는 방법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낸다.

도파민은 뇌에서 신경계를 타고 수용체에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이자 내분비샘에서 분비돼 각 기관과 세포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다.

현대인이 도파민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도파민이 동기부여와 성취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파민은 두 얼굴을 가졌다. 지나치면 특정 활동·물질을 중독적으로 갈망하는 증상을 보인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쾌감의 정도는 계속 감소하고, 그러다 도파민 기준선이 낮아지면서 동기부여, 집중력, 명료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중국엔 도파민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 약순환에 빠지고 만다.

이런 도파민 중독·붕괴 상황에 이르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자극을 즐기고 건강한 보상법을 찾아야 한다. 도파민

의 균형을 되찾아 뇌의 건강한 보상 시스템을 되돌리는 ‘도파민 디톡스’다.

저자인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는 “도파민 디톡스는 단순히 도파민을 유발하는 자극을 끊거나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도파민 중독으로 불안정해진 뇌 속 도파민 수용체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지 작성해 감정 변화와 성취 확인

저자가 권하는 도파민 디톡스는 총 3단계다. 1단계는 중독 행위 인지하기다. 내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 내 일상을 위협하는 도파민 중독 증상은 뭔지 스스로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독 행위의 원인을 찾는 다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한 순간을 상상해 본다. 2단계는 방해 요소 멀리하기다.

이때 앞서 인지한 문제 행동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휴식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는 생각이 기술이 요구된다.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기록해 스스로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 된다.



3단계는 노력에 대한 보상받기다. 절제의 시간을 잘 견딘 이들에게 보상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더 큰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개인의 필요와 취향, 성향에 따라 보상의 형태와 크기를 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끌어낸다. 도파민 디톡스를 실천할 땐 일지를 쓰면 좋다.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감정 변화와 성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

김성영 기자

건강칼럼

유일하게 이름 있는 치아, ‘사랑니’

‘사랑니’는 치아 중 유일하게 이름이 붙은 치아입니다.

치의학적으로 사랑니는 ‘지치(智齒)’라고 불리며, 가장 뒤쪽에 위치한 어금니를 가리킵니다. ‘지치’는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지혜 치아(Wisdom tooth)’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치아가 나오는 나이는 대개 17세에서 21세 사이로,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시작한다고 여겨졌던 시기와 맞물려 있어 ‘지혜’를 상징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사랑니는 보통 18세에서 20세 사이에 나옵니다. 이 나이가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랑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사실이 늦게 자라는 치아는 나타나면 대개 발치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니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세 번째 어금니’는 완전히 자라기 위한 공간이 부족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혜 치아는 비틀어지거나 부분적

으로만 자라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치아들이 밀려서, 나중에 교정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부분적으로 나오거나 옆으로 자라거나 아예 잇몸 아래에서 나오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잇몸 덮개 아래에 쌓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빠르게 감염이 발생하고, 결국 고전적인 사랑니 통증을 일으켜 치과에 가게 합니다.

사랑니의 제거는 항상 “지혜로운” 선택 일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사랑니를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 번째 어금니를 평생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예방 차원에서 사랑니를 제거하기로 선택하는데, 이 경우 환자는 수술의 위험(매우 적은 위험)과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치아를 두고 살아가는 위험을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사랑니 제거는 치아가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나, 담당 치과의사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때만 발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니의 발치 시기는 통상적으로는 사춘기가 지나서 성인이 되는 18-22세에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는 사랑니의 뿌리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으며 턱뼈가 무르기 때문에 발치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니가 신경관과 닿아 있더라도 발치 후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보철이나 교정 치료 같은 다른 치료 이전에 발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후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꼭 숙련된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비용을 떠나 안전한 사랑니 발치의 시작입니다.

특히 사랑니 발치의 경우, 전문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이 한국을 여행할 때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면, 보험 없이도 4개의

보험 상식

건강보험의 종류, HMO와 PPO 비교

건강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HMO, PPO, EPO, POS 등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HMO와 PPO입니다.

HMO 플랜 가입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제도라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정한 주치의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고, 전문의에게 가려면 주치의의 추천을 받아야만 합니다. 추천서를 받는데 수일의 날씨가 걸릴 뿐 아니라, 지정해 준 전문의에게만 갈 수 있습니다.

PPO의 경우 네트워크 밖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액이 커지므로 자신의 보험을 받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MO와 달리 원하는 전문의를 바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날 다른 전문의를 또 찾아갈 수도 있으니 사용에 제한이 없어 편리합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경우 HMO보

다 PPO 보험료가 더 비싼 편입니다.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의사는 고정 급여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는 치료비 일부를 코페이먼트 형식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선 환자가 자주 찾아오지 않을수록 이익이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건강검진도 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도록 노력하는 제도입니다. 임신부, 어린이, 노약자처럼 같은 의사를 계속 찾아야 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을 앓았고, 어떤 가족력이 있고, 무슨 알러지가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는 네트워크 밖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할 때마다 수입이 발생하므로 환자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ADDOCK FAMILY DENTAL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 (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Anthem(Liberty) •Aetna •Humana •Un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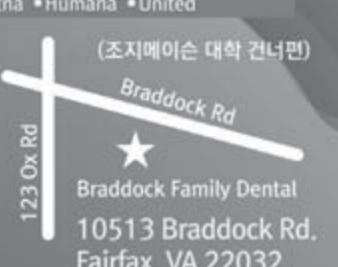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조지메이슨 대학 건너편)



Braddock Rd
123 Ox Rd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여자 햄릿으로... 이영애 '다시 봄'

32년 만에 연극 무대 복귀

입센 원작 '헤다 가블러' 주연 맡아 사회적 억압에 맞서는 여성상 연기 내달 7일부터 LG아트센터서 공연 "전단지 주던 기억 아직도 생생"

"영화에서, 드라마에서의 이영애와 연극의 이영애는 분명 다를 겁니다."

배우 이영애(54)가 32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선다.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대표작 '헤다 가블러'를 통해서다.

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아트센터에서 열린 '헤다 가블러' 제작 발표회에 참여한 이영애는 "힘든 면도 있지만 몇 배의 즐거움을 얻고 있다"며 "새로운 헤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93년 드라마 '택의 남편은 어디 십니까'로 데뷔한 이영애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2000), '봄날은 간다'(2001), '친절한 금자씨'(2005)와 드라마 '대장금'(2003) 등에 출연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올라섰다. 그가 연극에 출연한 것은 32년 전인 1993년 '짜장면'이 마지막. 나이도, 입지도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을 때였다.

이영애는 "20대 중반이던 당시에 연극에 대한 로망이 있어 작품에 출연했는데, 지하철 역에서 전단지도 나눠주고 포스터도 붙였다"며 "당시의 모든 과정이 좋은 감정으로 남았고, '헤다 가블러' 출연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8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연극 '헤다 가블러' 제작 발표회에서 이영애는 '헤다'에 대해 "하나의 색을 가진 인물이 아니다. 새로운 헤다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작은 사진은 '헤다 가블러' 홍보용 포스터 이미지. [사진 LG아트센터]

말했다. 이어 "드라마가 끝날 때마다 좀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좋은 연기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면서 "이번 작품은 대사가 많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캐릭터를 연구하면 할수록, 대본을 세 번 읽고 열 번 읽을 때마다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구나' 희열감도 느낀다"고 했다.

'헤다 가블러'는 19세기 사회적 제약과 억압 속에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 심리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영애가 연기하는 주인공 헤다는 아름답고 지적이지만 냉소적이며 파괴적이기도 한 복합적인 캐릭터.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는 동안 아네트 베닝, 이자벨 위페르, 케이트 블란쳇 등 유명 여배우들이 헤다를 맡았다.

이영애는 헤다를 "하나의 색을 가진 인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면서 (캐릭터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시점의 이영애가 헤다를 연기할 적기"라고도 했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육아를 하고, 또 아이가 벌써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다양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20~30대에 이 역을 만났다면 이렇게 공감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헤다라는 캐릭터는 '여성 햄릿'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연극 '햄릿'에서 햄릿 역을 맡았던 이승주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뇌한다는 부분에서 헤다와 햄릿이 맞닿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주는 '헤다 가블러'에선 헤다의 옛 연인 '에일레트'를 연기한다.

헤다의 남편으로 학문적 성취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테스만'은 감정 호가, 헤다에게 끈임없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판사 '브라크'는 지현준이 연기한다. 헤다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테아'역은 백지원이 맡았다. 백지원은 최근 큰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폭삭 속았수다'에 해녀로 출연해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매체에서 알려진 배우가 연극에 나오면, 평소 연극을 잘 안 보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19세기가 배경인 이 작품이 현대 관객에게도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인철 연출은 "고전이지만 관객이 수용하기 쉽게 연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입센의 대사를 현재의 관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걸 우선순위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아트센터 개관 25주년 기념작인 '헤다 가블러'는 다음달 7일부터 6월 8일까지 공연된다. 다음 달 8일에는 국립극단이 이혜영 주연의 동명 작품을 명동예술극장에 올린다. 자연히 두 스타 배우의 '연기 대결'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영애는 "헤다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은 이혜영 선배님의 헤다를 통해서였다"라며 "(동시 출연에) 처음에는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됐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이혜영 선배님의 헤다와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좋고, (우리의 대결이) 연극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전인철 연출은 국립극단 '헤다 가블러'와의 차별점에 대해 "LG아트센터라는 대극장에 맞는 표현과 영상을 활용해서 스펙터클한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남현기자

폐창에 스탠딩 공연... 록 콘서트 같은 뮤지컬

관객들이 배우와 함께 뮤지컬 넘버를 목청껏 부른다. 무대 위에 올라가 음료를 마시며 배우의 연기 장면을 코앞에서 볼 수도 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숨죽여 공연을 보는 것이 당연시된 소위 '시체 관극' 문화에 반기를 든 뮤지컬 작품이 속속 관객을 찾고 있다.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며 관객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도다.

다음 달 31일까지 뮤지컬 '원스'의 공연이 이어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

관객 참여형 '싱어롱 무대' 확산 '쉐도우: 더 비기닝' 좌석 아예 없애 '적벽'은 관객들 노래 합창 유도 음료 마시며 프리쇼 즐기는 경우도

티움에선 다른 공연장에선 보기 어려운 낮은 풍경이 펼쳐진다. 자신의 자리 대신 무대로 향하는 관객 행렬이 이어진다.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관객들은 직접 무대 위를 밟을 수 있다. 무대 위에 설치된 바에서 음료도 살 수 있다. 본 공연 10분 전 배우들이 관객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프리쇼'(Pre-show)를 연주한다. 프리쇼 이후 관객들이 내려와 자리를 잡은 뒤, 자연스럽게 본 공연으로 이어진다.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던 '폐창' 장면이 뮤지컬에서 등장하기도 했다. 판소리 뮤지컬 '적벽'은 지난 2, 3일 '싱어롱(Sing-along) 데이'로 정해 배우와 관객이 뮤지컬 넘버 '도원결의'를 커튼콜 종료 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했다. 20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리는 이 작품은 공연 중 관객이 추임새 소리를 낼 수 있다.



뮤지컬 '원스' 관객은 무대에 올라가 '프리쇼'를 즐길 수 있다

조선 시대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쉐도우: 더 비기닝'은 다른 뮤지컬과 달리 객석 내 의자를 없앴다. 록 콘서트와 같이 '스탠딩 무대' 형식을 차용한 것이다. 오픈런

(open run-폐막일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상연) 형태로 열리고 있는 뮤지컬 '런던 레코드'의 경우 관객들이 공연을 보면서 자유롭게 촬영하고 음료수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남현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고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과 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임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트럼프 “에드먼은 MVP… 재능 많아”

LA다저스 백악관 방문

오타니에겐 “배우 같다”
꺾끄러웠던 관계로 관심
로버츠 감독·베츠도 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MLB 월드시리즈 챔피언인 LA다저스 선수단과 7일 백악관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7~9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 3연전을 벌이기 위해 워싱턴 DC를 찾은 다저스 선수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격려·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에서 한국 대표팀 일원으로 뛰었던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을 “시리즈(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NLCS) 최우수선수(MVP)”로 칭하며 그와 악수했다.

에드먼은 작년 포스트시즌 때 뉴욕 메츠와의 NLCS 6경기에서 27타수 11안타(타율 0.407), 1홈런, 1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23을 기록하며 시리즈 MVP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드먼에 대해 시리즈 MVP를 차지할 정도로 “재능이 많다”(a lot of talent)라고 칭찬하면서 “(ALCS) 6경기에서 4할7리의 타율과 11타점을 올렸다. 그것은 굉장한 성적이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메

이저리그 사상 첫 50-50(홈런과 도루 각 50개 이상)의 대기록을 세우며 내셔널리그 MVP를 차지한 오타니 쇼헤이와 악수하며 “영화배우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8년 MLB 챔피언인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백악관 방문 기회가 있었으나 트럼프의 인종차별성 발언에 반발하며 백악관 방문을 보이콧했던 강타자 무키 베츠와도 인사를 나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의 투수 교체를 공개 비난한 일로 꺾끄러웠던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도 악수하며 격려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기

분이 상했던 로버츠 감독은 당시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워싱턴에는 원정 경기를 치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불참 의사를 표했으나 이날 행사에는 참석했다.

미국 주요 프로리그 우승팀의 백악관 방문은 관례처럼 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인종차별 논란 속에 일부는 반쪽짜리 행사가 되기도 했다.

2018년 MLB 챔피언인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단은 2019년 5월 백악관을 방문했으나 베츠를 포함한 핵심 선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관련 발언’에 반발하며 백악관을 찾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6일 메츠전 경기 모습. [Wendell Cruz-Imagn Images]

게레로 5억불 계약 블루제이스와 14년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26)가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4년 간 5억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다.

MLB닷컴과 ESPN은 6일 “토론토가 게레로 주니어와 14년 5억달러의 장기 계약에 합의했다”며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구단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4년 5억달러는 총액 기준으로 MLB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계약이다.

후안 소토가 15년 7억6500만달러에 뉴욕 메츠와 지난해 12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했고, 오타니 쇼헤이는 2023년 12월에 LA다저스와 10년 7억달러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오타니는 계약 금액의 97%에 달하는 6억8888만달러를 계약 종료 후인 10년 뒤에 수령하는 지급 유예(디퍼) 계약을 했다.

현지 언론은 “디퍼 조항 때문에 오타니 계약의 실제 가치는 약 4억6100만달러로 내려간다”며 “게레로 주니어 계약의 실제 가치는 소토 다음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게레로 주니어는 2019년 토론토에서 빅리그에 데뷔했고, 7일 현재 MLB 통산 82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7(3184타수 915안타), 160홈런, 51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60을 올렸다.



남자 프로골프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는 올해도 날씨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모습.

마스터스 올해도 ‘날씨 변수’

남자골프 시즌 첫 메이저 오거스타서 10~13일 열려

남자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명인 열전’ 마스터스 토너먼트 주간에 들어서자마자 ‘날씨 변수’가 덮치고 있다.

본격적인 마스터스 공식 일정 시작에 앞서 주니어 이벤트를 드라이브, 칩 앤드 퍼트 결승전이 열린 6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은 문개구름이 많이 끼긴 했으나 강한 햇빛이 오가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하지만 늦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고, 저녁부터는

비가 쏟아졌다.

오거스타 내셔널 여자 아마추어 대회가 열린 5일과 이날 모두 낮 시간대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나들어 한여름을 방불케 했던 오거스타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번 비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연습 라운드가 열리는 8일과 마스터스의 대표적인 사전 이벤트인 ‘파3 콘테스트’가 열리는 9일에는 비교적 맑은 날씨 속에 50~68도가량(섭씨 10~20도)의 기온을 보이겠다.

대회 1~4라운드가 펼쳐질 10~13일

엔 현재로선 비 예보가 거의 없지만, 2라운드와 열리는 11일에 흐리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있다.

대회 기간엔 하루 최저 기온이 50도 안팎, 최고 기온은 68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큰 편이다. 매년 4월 열리며 철쭉이 상징물로 꼽히는 대회인 마스터스는 최근 수년간 비를 비롯한 악천후로 일정의 영향을 받아왔다.

지난해 1라운드부터 악천후로 2시간 30분 늦게 시작됐고, 2023년에도 강풍이 불어타치는 등 좋지 않은 날씨에 2라운드도 중단돼 다음 날로 미뤄졌다.

최경주 2타차 단독 2위 PGA 챔피언스투어 ‘하디’

최경주가 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제임스 하디 프로풋볼 홀 오브페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220만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최경주는 6일 플로리다주 보카리톤의 브로큰 사운드 울드코스(파72·700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11언더파 205타의 앙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에 이어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670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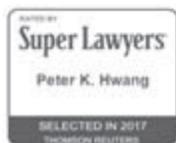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교통 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4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4월 9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 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사일 주말 가능한분 구합니다. 유경험자
443-386-0515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콧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 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 /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티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티트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 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 남자 구함
풀타임, 컴퓨터 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 분 연락바랍니다.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

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AM - 8:00PM -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콧시티 장수 설령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쉬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콧시티 픽업 스토어 카운터 구함
플/파트타임, 영어 가능하신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 근처
410-433-5008(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 301-538-4246(Soo)

싱글/타운 방 렌트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포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5분거리 반지하방(출입구별도), 주방, 욕실,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홀 욕실 딸린 이층 큰방, 반지하방(출입구별도)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볼티모어 오임스밀스 좋은 동네타운하우스 2층 방 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타운홀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우드스탁 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 별도, 금연. MD
443-983-1880

▶▶엘리콧시티 타운홀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홀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홀 방4, 차고2, 5차고2
301-385-3535 (문자요망)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 옆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콧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펜센터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arket Research Analyst: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regional, or nat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sale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Create digital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buying habits. 40 hours / week. Master in Business Administration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Nowy Brands, LLC at 7921 Jones Branch DR., Ste LL2, McLean, VA 22102

Marketing Specialist: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or reg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sale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Operate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buying habits. 40hours / week. Bachelor in data Analysis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Place: Sampanee, Inc. at 2122 P Street NW, Washington DC 20037.

센터빌 지역 멘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케어피플 홀헬스 (애난데일오피스)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분)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2024년에 본인 또는 가족 소득이 \$67,000 미만인 경우 세금보고 무료 서비스 안내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티트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

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랜드 홀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andhomehealth.com

러브랜드 홀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허비찌 쉘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짜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부널분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R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중앙일보**

Falls Church 서울 프라이머에서 세프/부주 방장을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레스/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
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로튼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보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분/
파/풀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571-332-6110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
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풀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전공
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 해주실분
703-473-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홈렌트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 HS)
2100 sqft, 방4, 화장3, \$3200
470-485-1875

센터빌 콜린 파월 초등학교 타운하우스 렌트
\$3,200 방4, 화장2.5, 차고2, 전부마
루, 업데이트, 새 페인트, 밝고 환한 집,
29/28/66/50/286, 근처에 H마트, 롯데,
성당, 4/15 입주
571-239-6054

맥클리 하이싱글 렌트 \$5,900
방5, 화장3, 카포치2, 펜스, 전부 모던형으로
리모델링, 메트로 근처, 6/1 입주
571-239-6054

첸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장
3.5, 차고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
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톤 2마일, DC 7 마일), 3층, 7 베드룸과
7 베스 전체 7500+ 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장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스프링필드 1층 콘도 1베드 1 풀베스
월 1,600불
703-489-6926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실 1.5, 깨끗하
고 위치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가능
301-466-1646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 집.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 (물값과 가스비 포함되어 있음).
H-Mart 가까이,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장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장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1. 애난데일 콘도 렌트 \$1,800 방1, 화장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튼 싱글 \$3,600, 방5, 화장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장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장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
트, 주차넉넉
703-965-2343

스프링 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
넷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무
443-631-7866

노바,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10분거리, 버크
싱글홈 지하 방하나 렌트, 가구완비, 금연,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 하우스
욕실 딸린 방하나
571-970-8048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 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센터빌 롯데에서 가까운 타운홈 집만 주무실
여자분, 유무 \$750
703-581-2631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렌트, 직장인, 학
생 환영, 취사가 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 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털 포함
703- 474- 9713

첸틀리 롯데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무, 취사, 인터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센터빌 유무, 세탁기, 취사가 가능. 아침부터 저
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 들고, 깨끗
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
유무,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콘도
방1, 욕실1, 주차1 남자분만
571-224-858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237-341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4월 9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증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센터빌 던킨쉬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첸들리 End Unit 벽돌 타운 하우스 \$779,000 방3, 화장실 3.5,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자이언트 몰 앞
▶571-239-6054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 건조기, 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데크,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앤드 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3. Open House 4/13 (SUN) 2-4pm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고1, 1,778sqft, RT29/66, Giant, Harris Teeter, Gateway Shopping mall
▶571-239-6054

애난데일 콘도 \$210,000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깝음
703-813-8949

1.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2010년, 방3, 화3.5, 차고2, 2,300sqft Fairoaks mall, route 50/66/286
2. 센터빌 Fair Crest Town \$695,000 방3, 화3.5, 차고1, 앤드 유닛, 데크, 팬스, 파월 초, 센터빌하이
3. 페어팩스 콘도 \$580,000 방2, 화2, 차고2, 엘리베이터, 계단없는 단층 콘도. 1,078sqft, 콘도비 \$534.77/m, 66/286/FairOaks mall, Fair lakes mall
4. 센터빌 중심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1. 페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 2, 페어팩스 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페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
3. 페어팩스 싱글 \$1,300,000 방4, 화장실 4+1, 차고 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4. 페어팩스 싱글 \$1,9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맨투어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집
5. 옥튼 새 싱글 \$2,300,000 방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 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
6. 맥클린 싱글 \$2,200,000 방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 3.5, 랜트 수익 \$2,900
2. 레스톤 타운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 2.5, 랜트 수익 \$3,000
3.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 3.5, 호수뷰, 차고 2, 랜트 \$3,6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렌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 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너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 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미장원리스 게인스빌 상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qft, 29/66, 세븐일레븐 옆
571-239-6054

미장원매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첸들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의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커커 | 식당 | 카워키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출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 상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5,000 상당의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 가마솥 식당용 중고 큰 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 테이블 11개, 의자 40개 중고 상태 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 \$3,000
571-814-8773

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차없으신분라이드 가능
703-939-2737

▶▶수학개인과와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찬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 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데크,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만 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데크, 메인터نس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 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외도공사, 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전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 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전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전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 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프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시, 파워 플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 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 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 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가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 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험처리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삼정, 가전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사위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웬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것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 계단
- 워크웨이
- 페디오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씽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핑수리/거러교체 ◆사이드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얼/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Seafood Carry-Out**을 소개합니다!

\$65,000 Only.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ecretary: Good morning Nick Anderson's office.
비서: 안녕하세요. 닉 앤더슨 사무실입니다.
Larry: Good morning. Is Nick in the office?
래리: 안녕하세요. 닉 사무실에 왔나요?
Secretary: I'm sorry. He's out of the office at the moment.
비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Larry: Do you know when he'll be back?
래리: 언제 돌아올까요?

Secretary: He said he would be in and out all day.
비서: 오늘은 하루 종일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Larry: I really need to talk with him soon.
래리: 급히 통화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Secretary: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비서: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Larry: Yes. Tell him that Larry has tickets for the baseball game tonight if he's up for it.

래리: 예. 오늘밤 야구경기에 가고 싶으면 래리가 티켓을 갖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Secretary: I'll give him your message.
비서: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Larry: Ask him to call me when he gets a chance.
래리: 기회가 되면 저한테 전화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기억할만한 표현

▶ at the moment: 지금은.
"At the moment I feel like staying home tonight."
(지금 기분으로는 오늘밤에는 집에 있을래.)
▶ be up for (something): 좋아하다. ~을 하고 싶다.
"I'm not up for another day at work."
(하루 더 일하고 싶지 않아.)
▶ get a chance: 기회가 있으면.
"If you get a chance give Helen my telephone number."
(기회가 되면 헬렌에게 내 전화번호 좀 알려줘.)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열쇠

(1)식물이 자라기 힘든 지역으로, 전체 육지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이 아름다운 것은 어떤가에 오아시스를 숨겨 두고 있기 때문이야(어린 왕자) (2)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푹 삶아 익힌 고기 (4)길가를 따라 설치해 놓은 등 (6)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 신분이 높거나 권력 또는 명예 따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죽 늘어난 것 (7)귀지를 파내는 도구 (8)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액운 (10)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곳. 하회 마을은 풍산 유씨들의 ~이다. □ □지□ (12)강물 속에 모래가 쌓이고 그 위에 풀이 수북하게 난 곳. 흔히 하류에 많이 생긴다 (14)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16)배의 앞부분. ↔고물 (17)아들의 아내 (18)임금이 훗날 나라가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의 미인. 뛰어난게 아름다운 미인. □국□□ (20)공식적으로 서로 만나 보는 예 (22)안사돈의 높임말 (25)종아리의 살이 볼록한 부분 (27)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만 열어서 사용하는 출입구 (28)목조 건축물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놓은 것 (29)특별히 좋은 맛.

세로열쇠

(1)피부 위에 도도룩하고 납작하게 돌은 균살 (2)임금에게 올리는 밤 (3)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 (4)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5)밤에 다니는 배에 목표, 뱃길, 위험한 곳 따위를 알려 주려고 불을 켜 비추는 시설 (6)의기가 왕성하여 천하를 압도함. 역발산 ~ (8)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사□ (9)홍살을 미리 피하려고 하는 곳. 우리 부서 직원들이 자주 아프니 ~라도 해야겠다 (11)오른손을 들어 올려서 하는 경례 (13)바닥에 엎드려서 허리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는 일 (14)그림이나 글씨를 표구하여 벽에 걸기도 하고 두루마리처럼 말아 두기도 하게 만든 것 (15)보침장수와 등짐장수. 상호 간에 규율, 예절, 상호 부조의 정신이 아주 강하였다 (19)누름적이거나 산적 꼬챙이 끝에 휘감아 늘어뜨린 오색 종이조각 (21)주자의 도루를 막기 위하여 던지는 공 (23)참쌀을 찌서 떡메로 친 다음 네모나게 썰어 고물을 문힌 떡 (24)흥부에게 박 시를 가져다 주었죠 (25)곡조의 빠르고 느림 (26)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행동. ~을 부리다.

스도쿠

					2	5	4	
7				1				8
3					8		9	
		1	4	5		7	3	
7		3				6		4
9		4						
		7	5				8	
		2	9					
				7	6		1	5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5	1	6	9	7	8	4	3
6	7	4	3	8	1	6	2	5
3	8	6	4	2	5	7	1	9
5	1	8	7	3	2	4	9	6
4	2	9	1	8	6	3	5	7
6	3	7	6	5	4	1	8	2
7	6	2	8	4	9	5	3	1
8	9	3	5	1	6	2	7	4
1	4	1	2	5	7	3	6	8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month year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애틀랜타 기타 지역

구인 구인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한국화장품샵 구인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실 경험 많은 분
영어가능자, 아파트 제공
(907)250-8864

이민생활의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매매

테리야키 매매 (\$75만)
워싱턴주, 월렌트 \$3,715
인기지역에서 10년이상 운영된
안정적인 To Go 전문
년매출: \$1.2M, 년순익 25만
John Lee (469)900-7073

40년된 덴탈랩매매
살기좋은 세크라멘토지역
품격있는 고객들과 성장할
아주 좋은 기회 ("가격문의)
꼭 관심있는분 이메일주세요
Hcho07@sbcglobal.net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킴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헷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비즈니스 홍보 걱정 끝~
중앙일보 '안내광고'가 있잖아요.

Korea Daily Tel. 213.368.2525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삼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www.purepower4u.com

남자의 힘, 무한한 능력

Pasadena Language Center

VIA-MAX GOLD

1 단 한알로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
정신적 육체적인 성기능 강장제로 한알 복용으로 3일간의
확실한 효과, 나이와 상관없이 성욕과 성기능 강화

2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100% NATURAL로서 최상의 생약을 첨단기술로
추출한 성분으로 부작용 전혀없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3 체내의 빠른 흡수로 신속한 효과!

- NITRIC OXIDE(산화질소) 혈관 확장으로 발기부전에
탁월한 효과와 혈액순환 강화로 성기능 증강
- DHEA SHBG 등 전체 남성 호르몬 증가로 성욕증가
- 신장기능강화로 피로회복
- 전립선기능 강화와 배뇨기능향상

판매처 | 중앙일보 핫딜(Hot Deal)
각약국에서 절찬리 판매중

관절통에 좋은 호인 한방크림(\$50 상당) 1개 Free

HEALTHREE 1 CO | 562-926-3001
14730 Beach Blvd. #103, La Mirada, CA 90638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